



하나 산업 전망

Hana Industry Outlook

2009년 하반기 국내산업 전망

1. 국내산업 전망 개관

Bird's Eye View _ 2

2. 전기·전자산업군

1. 반도체 _ 10
2. 디스플레이 _ 12
3. 이동통신단말기 _ 14

3. 기계산업군

1. 자동차 _ 18
2. 조선 _ 21

4. 소재산업군

1. 철강 _ 24
2. 비철금속 _ 26
3. 정유 _ 28
4. 석유화학 _ 30

5. 내수·유통산업군

1. 의류 _ 34
2. 소매유통 _ 36
3. 육상운송 _ 38
4. 해상운송 _ 40
5. 제약 _ 42
6. 건설 _ 44

6. 통신·방송서비스산업군

1. 통신서비스 _ 48
2. 유선방송 _ 50
3. S/W 및 IT서비스 _ 52

표1 실물경제관련 각종 지표의 최근 추이 _	02
표2 주요 업종별 경기전환점 분석 _	05
표3 2009년 하반기 주요 사념별 경기 기상도 _	06
표4 반도체 수출증가율 전망 _	10
표5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 전망 _	12
표6 전세계 이동통신단말기 출하량 증가율 _	14
표7 국내 자동차 수급 증감률 _	18
표8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 수급 증감률 _	20
표9 국내 조선업체 수주잔량 전망 _	21
표10 철강 주요 지표 _	24
표11 비철금속 주요 지표 _	26
표12 정유제품 수급 _	28
표13 석유화학제품 수급 _	30
표14 의류 주요 지표 _	34
표15 소매유통 판매액 지수 _	36
표16 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_	38
표17 해상운송 매출액 증감률 _	40
표18 주요 제약업체 영업 실적 _	42
표19 건설투자 증감률 _	44
표20 통신서비스 시장 증감률 _	48
표21 국내 케이블 TV 매출액 증감률 _	50
표22 IT 서비스 매출액 증감률 _	52

그림1 과거 경기침체기와 현재의 성장을 비교(YoY) _	03
그림2 과거 경기침체기와 현재의 성장을 비교(QoQ) _	03
그림3 전세계 반도체 매출 동향 _	10
그림4 DRAM 가격 변동 추이 _	11
그림5 NAND 가격 변동 추이 _	11
그림6 전세계 LCD패널 출하 동향 _	12
그림7 LCD패널 평균크기 및 인치당 평균가격 동향 _	13
그림8 전세계 휴대폰 출하량 _	14
그림9 주요 제조사 시장점유율 추이 _	14
그림10 주요 제조사 영업이익률 추이 _	15
그림11 스마트폰 출하량 및 비중 _	15
그림12 국내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량 추이 _	18
그림13 업체별 생산량 증가율 추이 _	18
그림14 5개 완성차업체 합산매출액 및 이익률 _	19
그림15 주요 환율 추이 _	19
그림16 자동차부품제조업 생산지수 _	20
그림17 자동차부품업종 합산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_	20
그림18 국내 신규수주량 추이 _	21
그림19 국내 수주잔량 추이 및 전망 _	21
그림20 선종별 신조선가 Index 추이 _	22
그림21 후판가격과 조선소 수익성 추이 및 전망 _	22
그림22 중국 내수 철강재 가격 추이 _	24
그림23 국제 조강 생산량 증감률 추이 _	24
그림24 미국 철강산업 재고순환 및 신규주문 현황 _	25
그림25 국내 철강업종 수익성 전망 _	25
그림26 2009년 상반기 비철금속 가격 증가율 _	26
그림27 중국의 구리 순수입량 및 국제가격 추이 _	26
그림28 LME 아연가격 및 재고 추이 _	27

그림29 국내 비철금속 업종 수익성 추이 및 전망 _	27
그림30 국내 석유제품의 내수 및 수출 증가율 _	28
그림31 정제마진 전망 _	29
그림32 석유제품 가격스프레드와 두바이유가 _	29
그림33 석유화학제품 가격 추이 _	30
그림34 합성수지 가격 스프레드와 영업이익률 _	30
그림35 석유화학제품의 내수 및 수출 증가율 _	31
그림36 석유화학제품 재고압력지수 추이 _	31
그림37 할인점 의류 매출액 증감률 추이 _	34
그림38 백화점 의류 매출액 증감률 추이 _	38
그림39 의류 소비지출 관련 향후 경기 전망 _	35
그림40 주요 의류업체의 매출액 및 성장률 전망 _	35
그림41 소매 판매액 지수 _	36
그림42 소매업태별 월별 판매액 추이 _	36
그림43 소비자 심리지수 _	37
그림44 소비자 물가지수 _	37
그림45 육상운송업 생산지수 증가율 _	38
그림46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_	38
그림47 항만 물동량 추이 및 증가율 _	39
그림48 육상운송업 합산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_	39
그림49 BDI 추이 _	40
그림50 중국 철광석 재고량과 벌크 물동량 추이 _	40
그림51 WS지수와 OPEC 원유 생산량 _	41
그림52 HR 지수 추이 _	41
그림53 원외처방의약품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_	42
그림54 의약품 도매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_	43
그림55 제약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 _	43
그림56 월별 미분양주택 추이 _	44

- 그림 57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추이 _ 44
- 그림 58 | 연도별 녹색뉴딜 투자 내용 _ 45
- 그림 59 | 건설업종 영업이익률 추이 _ 45
- 그림 60 |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순증 추이 _ 48
- 그림 61 | 통신서비스별 월별 가입자수 증감 추이 _ 48
- 그림 62 | 유선통신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_ 49
- 그림 63 | 이동통신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_ 49
- 그림 64 | 디지털 CATV 가입자수 전월대비 증가수 추이 _ 50
- 그림 65 | 유선방송업 서비스활동지수 추이 _ 51
- 그림 66 | SO 3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_ 51
- 그림 67 | 설비투자 및 무형고정자산투자 증감을 추이 _ 52
- 그림 68 | 패키지 S/W BSI지수 추이 _ 53
- 그림 69 | 컴퓨터관련서비스 BSI지수 추이 _ 53

1. 2009년 하반기 국내산업 전망 개관

개관 | 대부분의 업종이 상반기중 저점을 통과. 그러나 수요 확대에 기반한 예년 수준의 경기 회복은 금년중에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기 회복 속도도 업종별로 크게 상이

- 최근 들어 공급관련 지표중심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 및 소비지표 등 수요와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정체상태
- 민간소비와 주요 선진국의 경기 불투명, 유가 상승 및 환율 하락 등으로 수요확대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예년 수준의 경기 회복은 금년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업종이 금년 상반기중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나, 석유화학업종은 하반기중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전방산업의 설비투자가 불투명한 IT장비업종이나 IT서비스업종은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 또한 조선과 해운은 시황악화 지속으로 2011년 이후에나 경기 회복을 기대

표 | 주요 업종별 경기전환점 분석

	'08.4Q	'09.1Q	2Q	3Q	4Q	'10.1Q	2Q	3Q	4Q	'11년 이후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이통단말기		-		+						
기계		-					+			
자동차		-					+			
조선				-						+
철강		-					+			
비철금속		-					+			
정유				-					+	
석유화학					-				+	
의류		-			+					
소매유통		-			+					
육운		-				+				
해운			-							+
제약		-						+		
건설		-					+			
통신서비스			-	+						
유선방송		-		+						
SW 및 IT서비스			-			+				

주 : -는 경기 최저점, +는 경기회복 시점(플러스 성장 전환점)을 의미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전기·전자산업군(반도체/디스플레이/이동통신단말기)

반도체 | 기저효과로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메모리 반도체의 연간 수출은 -17.1%로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

- 2009년 상반기 동향 | 전 세계 반도체 월간 매출이 5개월 연속 하락한 후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전년대비 -25% 수준이며 지난 6개월간 100%가 넘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은 다소 개선되는 추세
- 2009년 하반기 전망 | 기저효과로 인해 3/4분기와 4/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3/4분기 이후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경우 수익성 개선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NAND 시장의 회복이 DRAM보다 빠른 전망

디스플레이 | 2/4분기 수출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정 부분은 재고 축적의 효과이며 하반기 공급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음

- 2009년 상반기 동향 | 3월부터 전 세계 LCD패널 출하가 전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패널 시장이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5월 수출이 전년대비 18.2% 증가하는 등 국내 업체들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2/4분기 흑자전환도 가능
- 2009년 하반기 전망 | TV, 휴대폰 등 LCD패널의 수요산업이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패널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하반기에 공급과잉과 더불어 패널 가격의 하락이 재현될 소지가 있음

이동통신단말기 | 경기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경쟁사 부진에 따라 하반기에는 반사이익이 가시화 될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출하량 감소가 적고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며 경기위축에 선방
- 2009년 하반기 전망 | 이후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경쟁사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며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을 확대할 전망이며 스마트폰은 위기 및 기회 요인이 될 듯

3. 기계산업군(자동차/조선)

자동차 | 정부의 산업지원 및 경기회복세의 효과로 자동차 수요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업체별 양극화, 저수익 제품믹스, 산업내 구조조정은 심화되어 생존경쟁은 지속될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정부의 산업부양책 효과로 완성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기비 6.0% 하락에 그쳤고, 2008년 하반기 대비 7.4% 상승, 수출은 전년동기비 35.5% 하락.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자동차부품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25.5% 크게 하락
- 2009년 하반기 전망 | 미국업체의 불확실성 해소 및 산업 부양책 실시 국가 확대에 의해 글로벌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완성차 수출 및 내수는 각각 전년동기비 8.3%, 0.2% 증가, 자동차부품생산지수는 0.4% 하락에 그치고, 저수익 판매구조 및 환율하락으로 수익성도 낮아지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체별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

조선 |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신규수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아 있는 수주잔량이 미래에도 유효할지는 의문

- 2009년 상반기 동향 | 신규수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생산량은 전년동기비 28% 성장하여 수주잔량이 빠르게 하락. 주요 업체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투입 후판가격이 높은 관계로 수익성은 8~9% 수준이 된 것으로 추정
- 2009년 하반기 전망 | 신규수주는 해양플랜트를 제외하고는 기대하기 어려움. 신규수주 부재와 생산량 증가, 선수금 입금 지연 등으로 대형조선소의 차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중소 조선소 유동성 위기 심화될 전망. 매출액 증가와 후판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4. 소재산업군(철강/비철금속/정유/석유화학)

철강 | 과잉재고와 원가율 상승 및 판매단가 하락으로 하공정 업체 다수가 상반기 현재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며, 국내 업체들이 제품 출하가 인하분 이상의 원재료가 인하 협상에 성공함에 따라 고가 원재료가 소진되는 3/4분기 이후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예상

- 2009년 상반기 동향 | 작년 4/4분기 이후 과잉재고와 원가율 상승, 판매단가 하락으로 일관 제철업을 제외한 하공정 업체 다수가 2009년 상반기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나, 최근 봉형강 위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중국, CIS 지역을 중심으로 철강가격이 상승세를 보임
- 2009년 하반기 전망 | 국내 업체들이 제품 출하가 인하분 이상의 원재료가 인하 협상에 성공함에 따라 고가 원재료가 소진되는 3/4분기 이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 그러나 2009년내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의 경기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2010년 이후에나 추세적인 경기 회복을 예상

비철금속 | 각국 경기부양정책 추진에 따른 실수요 증가와 달러약세에 따른 투기수요 증가로 상반기 중 LME 지수는 45.6% 상승. 원가 상승분이 제품단가에 반영되면서 하반기 업체의 이익률 상승이 기대되며, 단기 급등으로 일정수준의 비철금속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나 현수준은 지지될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중국의 ‘금속비축제도’ 시행과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추진에 따른 실수요 증가와 달러약세에 따른 투기수요 증가로 상반기 중 LME 지수는 45.6% 상승. 특히 납과 전기동의 가격 상승률이 70% 이상으로 매우 크며, 아연과 니켈도 40% 가까이 상승
- 2009년 하반기 전망 | 뚜렷한 수요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단기 급등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나,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현재 가격 수준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는 비철금속 가격 상승분이 제품단가에 반영되면서 업체들의 수익률 개선이 기대됨

정유 |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 메이저의 공장 가동 중지 등에 따른 수출 호조세로 상반기 가동을 상승 및 정제마진 개선이 가능하여 평균 6~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그러나 실물경기 회복 지연, 중국의 자급률 개선, 환율 하락 등으로 하반기 수익성이 소폭 하락할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중국의 수입 수요가 경기 부양정책으로 크게 늘었고, 메이저들의 공장 가동 중지로 국내 정유사들이 반사이익을 향유함. 또한 설비 증설 효과와 고도화비용 상승, 고가 제품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평균 6~7% 유지
- 2009년 하반기 전망 |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미진한 가운데, 중국의 지속되는 증설로 자급률이 개선되고, 경기부양 효과도 확대되기 어려운 반면, 메이저의 공장 가동 정상화로 수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가동을 하락과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은 상반기대비 1.5%p 하락할 전망

석유화학 | 세계경기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그나마 중국의 경기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수출 위축 폭이 크지 않을 전망. 그러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의 대규모 신규 증설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 출회될 예정으로 있어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내수 성장세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예상을 상회하는 수입 수요 증가가 나타나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평균 12.5%에 이르는 호조세를 보임
- 2009년 하반기 전망 | 세계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동의 대규모 증설 물량 출회가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마저 하락하여 수출 둔화가 두드러질 듯. 평균 영업이익률도 7~8%에 그칠 전망

5. 내수·유통산업군(의류/소매유통/물류/제약/건설)

의류 | 두달 연속 소비지출 관련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의류 소비는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9년 국내 GDP 및 민간소비가 각각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소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소비지출 관련 지수가 3월을 저점으로 두달 연속 상승하고 있어 의류 소비는 최악의 시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 실제 할인점 의류 매출액이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 폭을 줄여가고 있으며, 백화점 역시 4월 매출이 전년동월비 2.8%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모습
- 2009년 하반기 전망 | 2009년 국내 GDP 및 민간소비가 각각 -1.9%,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소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할인 판매와 경쟁심화로 인한 판관비 부담 증가로 임가공 위주 중소기업체의 수익성 회복이 더욱 어려울 전망

소매유통 | 대형유통사 위주로 정착된 소매유통은 상반기의 경기방어적 성향에 의한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점진적 회복이 전망됨

- 2009년 상반기 동향 | 2009년 상반기 소매유통업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합리적인 소비행태의 정착, 대형유통사 위주의 시장개편 및 고소득층·외국인의 양호한 소비로 인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 2009년 하반기 전망 | 하반기 소매유통업은 他 산업대비 침체의 골이 깊지 않고 경기 순환상 저점을 이미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나, 경기방어적 성격으로 다른 산업대비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전망

육상운송 | 상반기 물동량 급감으로 육상운송업이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정부지원 및 대기업 위주의 사업강화로 부진은 다소 회복될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산업경기 악화로 수출입량이 감소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업 생산지수가 전년동기비 12.6% 하락하는 불황을 보였으며, 전자상거래의 상대적인 호조로 인해 소포송달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4.5% 상승, 업계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 2009년 하반기 전망 | 하반기 경기침체 완화로 인해 육상운송업 경기도 회복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1.8% 하락에 그치고, 소포송달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3.7% 상승 예상, 물동량 감소로 인한 단가인하경쟁은 지속되어 수익성은 하락하지만 정부 지원과 더불어 대기업들의 사업영역확대로 매출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

해상운송 | 벌크선 시황의 변동성은 매우 큰 상태이며, 컨테이너선 시황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있어 주요 해운사의 손실 누적

- 2009년 상반기 동향 | 중국의 철광석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2/4분기에 BDI는 4,000p를 돌파하기도 함. 유조선 시황은 유가상승으로 저점을 지나고 있으나 컨테이너선 시황은 회복되고 있지 않음. 주요 해운사들은 매출감소와 영업적자를 기록
- 2009년 하반기 전망 | 중국의 원자재 수입 지속 가능성, 유가 상승세 지속, 계절적 컨테이너선 호황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전 선종에 걸쳐 신규 인도선박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시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해운사들의 영업적자는 지속될 전망

제약 | 1/4분기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예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경기 부진과 수요 둔화 속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지속, 대형 제네릭의약품 출시 및 완제품 수출 확대 등으로 매출액이 전년동기비 7.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도 9.9%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 유지
- 2009년 하반기 전망 | 약가 재평가로 인한 약가 인하가 불가피하나 인하율이 크지 않을 전망이고, 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 예정으로 신약 출시가 지속될 전망. 이에 따라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11.2%, 영업이익률 10.3% 예상

건설 | 공공공사 수주 증가와 미분양 매각으로 현금흐름 개선되고 있으나 국내외 수주경쟁 심화와 수익성이 낮은 공공 및 재건축사업 비중 확대로 원가율이 상승하고 판촉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 개선은 더딜 전망

- 2009년 상반기 동향 |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유동성 경색 완화 및 구조조정 실시, 정부의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 의지로 건설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미분양 매각과 공공토목수주 증가로 현금흐름은 개선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저위험추구로 외형 및 수익성은 저조한 상황

- 2009년 하반기 전망 | 분양물량 증가로 주택시장의 수급여건은 점차 악화가 우려되지만 공공토목부문의 호조는 계속될 전망. 그러나 국내외 수주경쟁의 심화와 토목, 재개발·재건축 등 저마진사업 비중 확대와 적극적 프로모션에 따른 판촉비 등 판관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듯

6. 통신·방송서비스산업군(통신서비스/케이블TV/SW 및 IT 서비스)

통신서비스 | KT-KTF합병에 따른 가입자 확보를 위한 유·무선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촉발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 VoIP 번호이동제도 개선으로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결합상품 판매증가에 매출성장세는 점진적으로 회복

- 2009년 상반기 동향 | 인터넷전화로의 전환과 결합상품 할인, IPTV의 부진한 가입자 증가세로 유선통신서비스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수익성은 다소 개선. 한편 KT-KTF 합병에 따른 이통사간 판촉경쟁 심화로 인하여 이통사의 수익성은 2%p 정도 하락 반전
- 2009년 하반기 전망 | 유선전화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는 인터넷전화, IPTV 등 초고속인터넷 기반 신규서비스로 인하여 성장률은 다소 회복하나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듯. 한편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률 하락도 지속, 상반기 대비 2%p 하락할 듯

유선방송 | 디지털CATV 가입자 증가세 둔화와 광고시장 부진으로 상반기 성장률이 훼손되었던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 광고시장 회복 기대감과 MVNO제도 도입, VoIP시장 확대로 MSO들의 성장세는 2/4분기를 지나면서 회복 예상. 그러나 통신사와의 경쟁으로 전년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듯

- 2009년 상반기 동향 | 광고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디지털전환 지속에 따른 ARPU 상승으로 매출액 성장추세는 지속되며 수익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그러나 통신사와의 경쟁으로 월평균 10만명에 이르던 디지털가입자 순증 규모는 7만명으로 하락
- 2009년 하반기 전망 | MVNO제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등 경쟁촉진 정책으로 결합상품의 판촉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신사들의 IPTV결합상품 가입자 순증이 빨라질 전망. 이로 인하여 유선방송은 전년대비 3.2% 성장에 그치면서 소폭의 수익성 하락을 겪을 듯

S/W및 IT서비스 | 경기변동에 민감한 정보화 투자 위축에도 공공부문 조기발주로 소폭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S/W 및 IT서비스는 하반기 공공분야 발주 여력 감소와 기업 IT투자의 더딘 회복 속에 4/4분기 생산액이 전년수준까지 회복될 듯. 그러나 수익성 양극화는 여전히 심화

- 2009년 상반기 동향 | 기업들의 무형자산투자는 1/4분기 4.5% 감소하는 등 정보화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소수 관계사 물량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을 제외하고 악화가 불가피. 이로 인하여 수익성도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
 - 2009년 하반기 전망 | 공공분야의 상반기 조기발주에 따른 발주 여력 감소와 제조, 금융 분야의 IT투자 위축으로 인하여 하반기도 부진이 지속될 듯. 특히 공공시장 해외시장 개척 기회와 관계사 구축 물량이 없는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의 적자구조 개선은 힘들 듯
-

2009년 하반기 국내산업 전망 개관

Korea Industry Outlook :
2009 2nd Half



Bird's Eye View



Bird's Eye View

대부분 상반기중 저점을 통과.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는 업종별로 크게 차별화

최근 들어 공급관련 지표중심으로 호전되고 있는 모습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연말의 우려와는 달리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저점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국내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의 회복을 보이면서 저점 통과 여부보다도 오히려 회복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
- 그러나 실물경제와 관련된 각종 지표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비해 실물경제의 안정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음. 각종 지표중 최근 들어 호전되고 있는 지표는 가동률과 재고 등 주로 생산과 관련된 지표들이며, 수요와 관련이 깊은 설비투자과 고용, 소비지표 등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임
- 정부정책의 시차효과나 일부 업종의 억제 수요 등으로 수요관련 지표가 축소될 여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지표 개선은 공급측면에 제한되고 있는 모습

표1 | 실물경제관련 각종 지표의 최근 추이

	주요 지표		최근 추이	
호전되고 있는 지표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	전년 12월 저점후 4개월 연속 빠른 회복세
		서비스업	→	상승세 반전
	공장 가동	제조업 가동률	→	1월 저점후 3개월 연속 상승세
		제조업 가동률지수	↗	1월 저점후 3개월 연속 빠른 상승세
	재고수준	제조업 재고율지수	↘	전년 12월 고점후 4개월 연속 빠른 하락세
	건설투자	건설기성액	→	소폭 증가세
	경기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	전월비 4개월 연속 상승세
		동행종합지수	→	전월비 3개월 연속 상승세
아직 부진한 지표	설비투자지수		↘	하향 추세 지속중
	고용	실업자수	→	3월 고점후 소폭 감소
	소비	소비재판매액지수	→	2월 소폭 반등후 정체 지속
	수출	증감률	↘	전년동월비 7개월 연속 (-) 성장 - 전월비로는 소폭 증가세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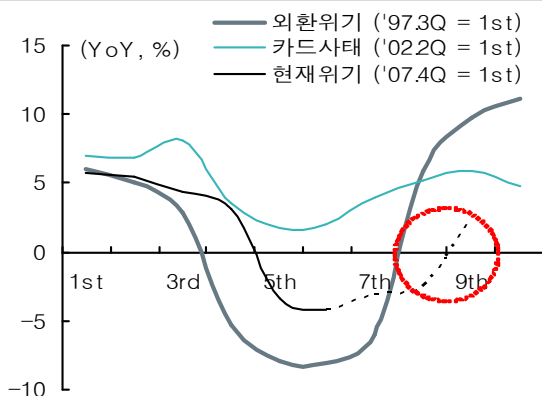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경제구조에서 수출이 7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속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물론 전월비로는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이는 연말, 연초의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결국 최근의 공급관련 지표의 호전은 재고조정에 의한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지 구조적인 수요확대를 기반으로한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다만 재고조정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동률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악의 경기 부진상황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또한 금융과 유통중심의 서비스업은 이미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경기지표 호전은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했던 제조업부문에 나타나고 있음

수요 확대에 기반한 예년 수준의 경기회복은 금년중에는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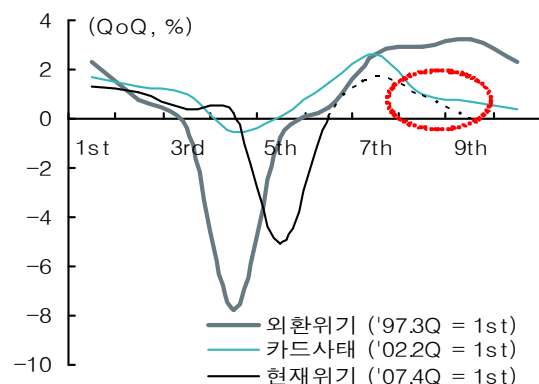
- 과거의 경기침체기와 비교해볼때, 이번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의 우려보다는 빠르게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년동기비 성장률을 기준으로한 경기저점은 2009년 1/4분기에 통과한 것으로 판단
- 과거 대표적인 경기침체기였던 외환위기나 카드사태 등이 수출과 내수 한쪽의 위기상황이었거나 국내경제에 한정된 위기였는데 반해, 이번의 금융위기는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어 과거 대공황 당시의 충격에 비견되기도 했었음
- 그러나 현재의 지표 추이를 감안하면 충격의 정도는 외환위기때보다도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외환위기 당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5분기만에 -14.1%p(전년동기비 기준) 하락한 반면, 이번의 위기에서는 -9.9%p 하락
- 다만 경기회복은 외환위기때 보다도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민간부문의 수요와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데 기인함. 또한 유가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축소와 채산성 악화 등도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그림1 | 과거 경기침체기와 현재의 성장률 비교(YoY)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 | 과거 경기침체기와 현재의 성장률 비교(QoQ)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작용. 외환위기시 경기 저점후 3분기만에 17.8%p의 반등이 있었으나, 이번 위기에서는 6.6%p 정도의 반등이 예상됨

- 전분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금년 2/4분기에 1.7%의 성장을 한 후 2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 기인함

업종별로 경기 회복 속도는 차별화

- 대부분의 업종이 금년 상반기중에 경기 저점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후의 경기 회복 속도는 업종별로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IT제조업은 극심한 수요부족으로 경기침체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업체의 감산으로 인한 재고조정으로 가격이 반등하는 등 비교적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어 하반기중에는 (+)성장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예년 수준의 경기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품 및 재료업체보다는 장비업체의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1/4분기중 중국의 수요 확대와 선진 메이저업체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 등으로 가장 양호한 업황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중동지역의 증설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 되면서 4/4분기중 경기 저점이 예상됨
-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종은 당분간 시황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2011년 이후에나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업종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SOC 투자확대와 수도권중심의 시장회복으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상반기중에 지난 것으로 판단됨
- 이밖에도 철강은 재고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상승 및 3/4분기부터 저가 원료탄의 투입으로 점진적인 수익성 호전이 기대되고, 자동차업종도 현대기아차중심의 실적 회복 전망

표2 | 주요 업종별 경기전환점 분석

	'08.4Q	'09.1Q	2Q	3Q	4Q	'10.1Q	2Q	3Q	4Q	'11년 이후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이통단말기		-		+						
기계		-					+			
자동차		-					+			
조선				-						+
철강		-					+			
비철금속		-					+			
정유				-					+	
석유화학					-				+	
화학섬유		-					+			
소매유통		-			+					
육운		-				+				
해운			-							+
제약		-						+		
건설		-					+			
통신서비스			-	+						
유선방송		-		+						
SW 및 IT서비스			-			+				

주 : -는 경기 최저점, +는 경기회복 시점(플러스 성장 전환점)을 의미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3 | 200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기상도

산 업	생산		내수		수출		수익성	
	2009.1H	2009.2H	2009.1H	2009.2H	2009.1H	2009.2H	2009.1H	2009.2H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단말기			-	-	-	-		
자동차								
조선			-	-				
철강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화학섬유								
육상운송					-	-		
해상운송			-	-				
소매유통	-	-			-	-		
제약								
건설			-	-	-	-		
통신서비스	-	-			-	-		
유선방송	-	-			-	-		
SW 및 IT서비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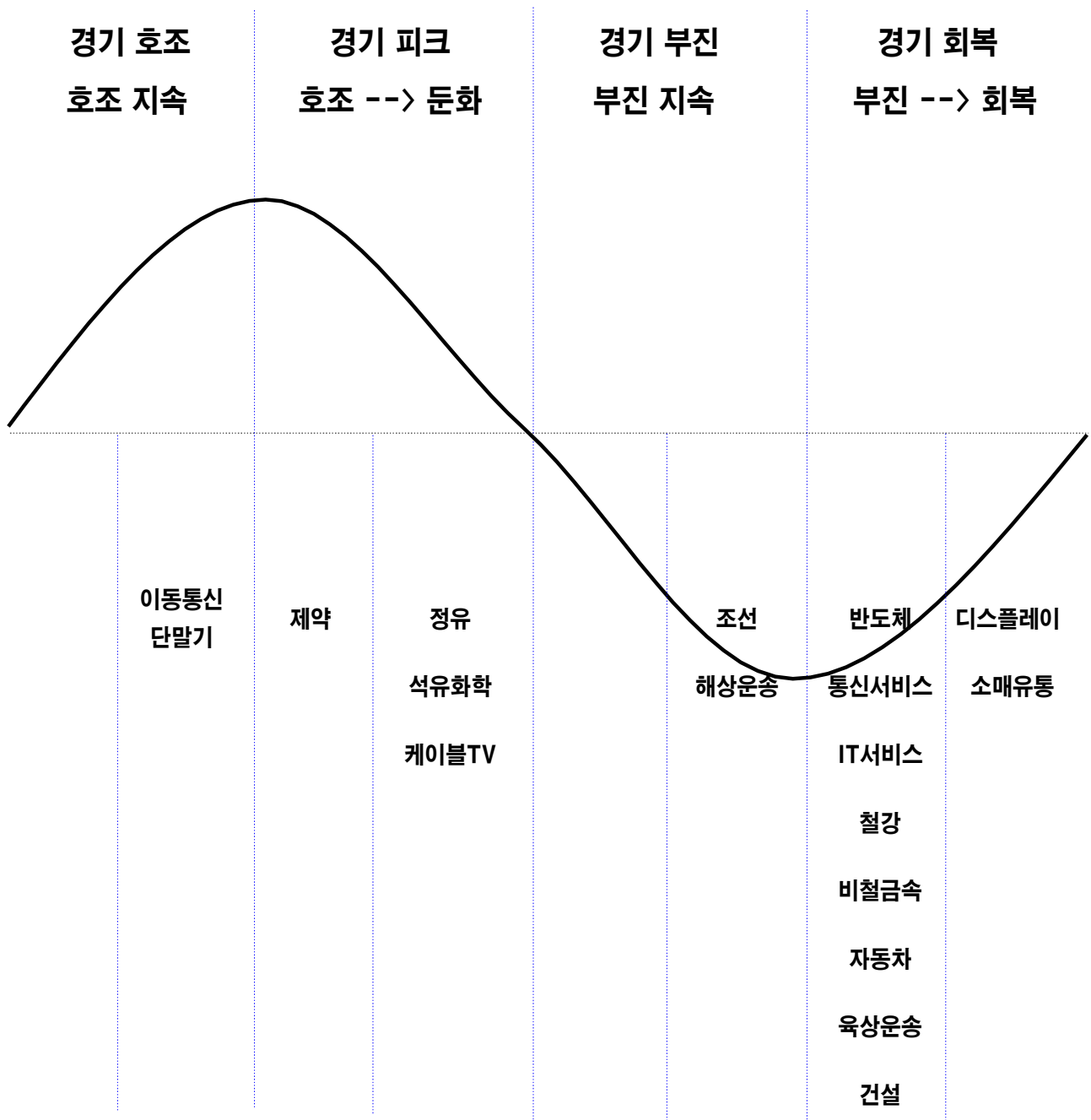
주 1 : : 호황, : 안정 성장, : 다소회복, : 정체상태, : 다소부진, : 불황

기상도는 전년동기비 증가율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

2 : 조선산업 생산과 수출은 수주잔량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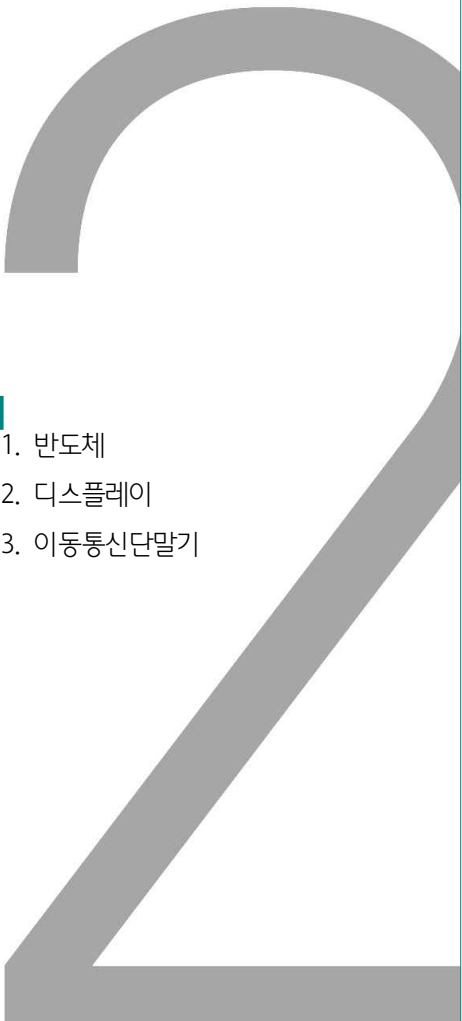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업종의 2009년 하반기 경기사이클



전기·전자 산업군

Electronics

- 
- 
- 1. 반도체
 - 2. 디스플레이
 - 3. 이동통신단말기

1. 반도체 : 3/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기저효과일 뿐

표4 | 반도체 수출증가율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메모리	6.6	30.8	-26.8	-1.8	-44.9	-47.5	-24.0	-45.5	-35.3	5.5	33.4	-17.1
비메모리	-30.8	NM	5.2	17.1	14.1	-26.2	1.3	-39.1	-15.2	-12.4	25.3	-1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2008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9월 230억달러에서 2월 142억달러로 38% 급감
- 비록 2009년 3월부터 2개월 연속 매출이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25~-30%에 머물고 있으며 2/4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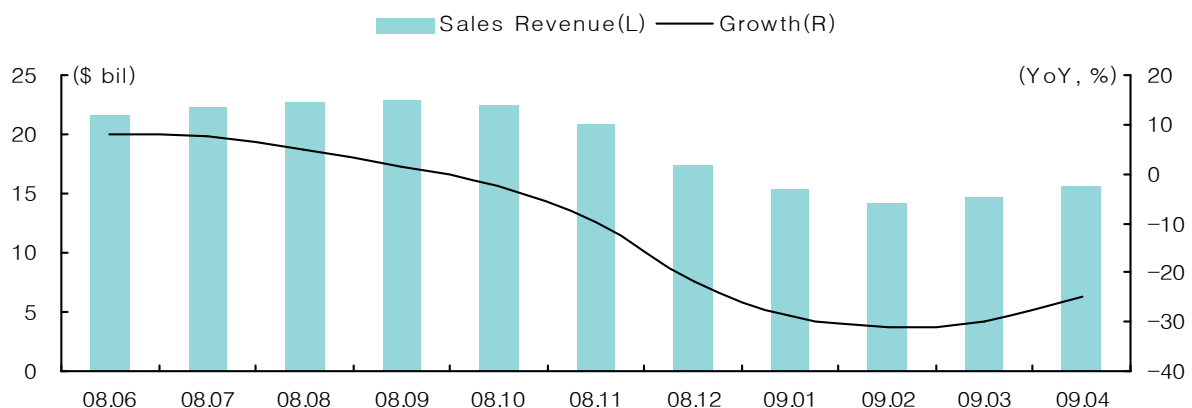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의 여파로 2007년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3/4분기부터 불황이 심화
- 메모리 수출증가율은 2008년 4/4분기 -47.5%로 바닥을 형성한 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극심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4분기에도 부진은 지속

해외 메모리 업체들의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

- 1/4분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각각 -12.8%와 -39.2%로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반기 전체로도 적자 예상

그림3 | 전 세계 반도체 매출 동향



자료 : SIA

- 해외 업체들의 경우 1/4분기의 적자 폭이 오히려 전분기보다 증가했는데 엘피다, 난야, 파워칩, 프로모스는 영업이익률이 -100%를 넘어서 매출보다 손실이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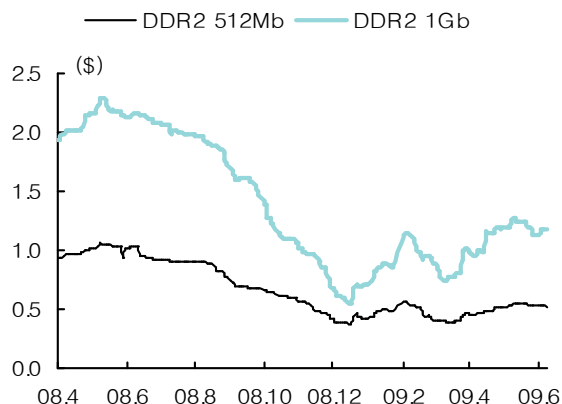
3/4분기 이후 반도체 가격은 다시 하락 가능

-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이면에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있음. 12월 바닥을 형성한 반도체 가격은 다소간의 변동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6개월째 상승 중에 있음
- 6개월 사이 1Gb DRAM과 16Gb NAND는 각각 112.7% 142.4% 상승했으나 6월에는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있으며 3/4분기까지 소폭 추가 상승 후 4/4분기에는 하락 가능
- 현재 반도체 가격은 삼성전자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삼성전자의 경우 빠르면 2/4분기, 늦어도 3/4분기에는 분기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하이닉스의 경우 3/4분기 혹은 4/4분기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3/4분기 이후 반도체 가격이 재차 하락할 경우 흑자전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하반기 NAND 수요가 먼저 회복되기 시작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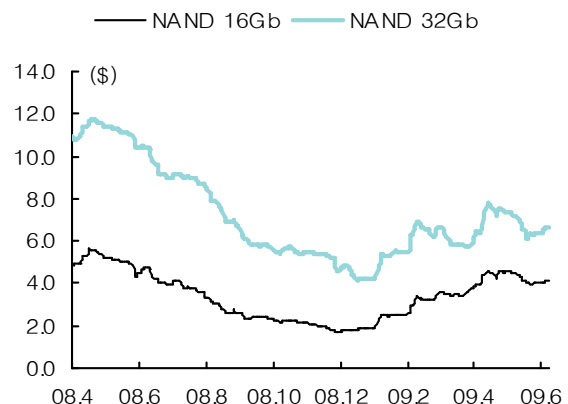
- 반도체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수요 회복이 필요한데 PC의존도가 높은 DRAM 보다는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NAND의 수요가 먼저 회복될 전망이어서 NAND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도시바가 유리한 상황
- 반도체 수출은 3/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2007년과 비교할 경우 큰 폭의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보임
- 2009년 연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메모리 -17.1%, 비메모리 -12.2% 예상

그림4 | DRAM 가격 변동 추이



자료 : DRAM Exchange

그림5 | NAND 가격 변동 추이



자료 : DRAM Exchange

2. 디스플레이 :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하반기 공급과잉 우려

표5 |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액정디스플레이	160.7	36.4	30.4	26.5	14.3	-21.7	9.5	-10.2	17.5	5.5	35.4	1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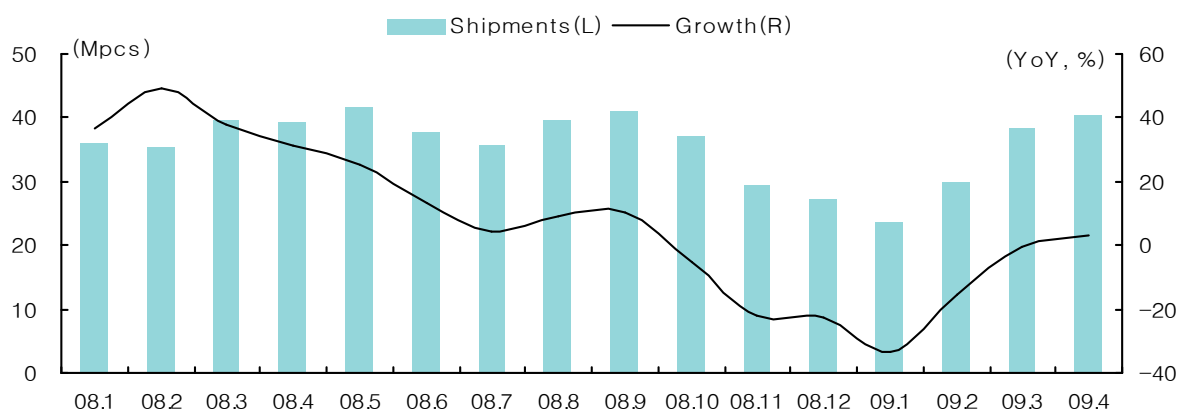
출하가 빠르게 증가하며 2/4분기 중 플러스로 전환

- LCD산업은 2008년 상반기까지 호황을 누리던 중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과 출하가 급락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음
- 전 세계 LCD패널 출하는 2008년 9월의 4,090만개에서 2009년 1월 2,370만개로 4개월 만에 42% 감소했으나,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4월에는 4,040만대로 3개월 사이 70.5% 증가
- 출하 증가에 힘입어 국내 LCD 수출도 빠르게 증가해 5월에는 전년대비 18.2% 증가했으며 2/4분기 전체로도 출하가 크게 늘었던 2008년보다도 1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1/4분기 LCD패널 제조업체의 적자가 확대

-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1/4분기 영업이익률은 각각 -8.3%와 -13.2%로 4/4분기와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대만업체들에 비해 양호한 실적이며, 2/4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
- 반면 대만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40%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며 최근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그림6 | 전 세계 LCD패널 출하 동향



자료 : Display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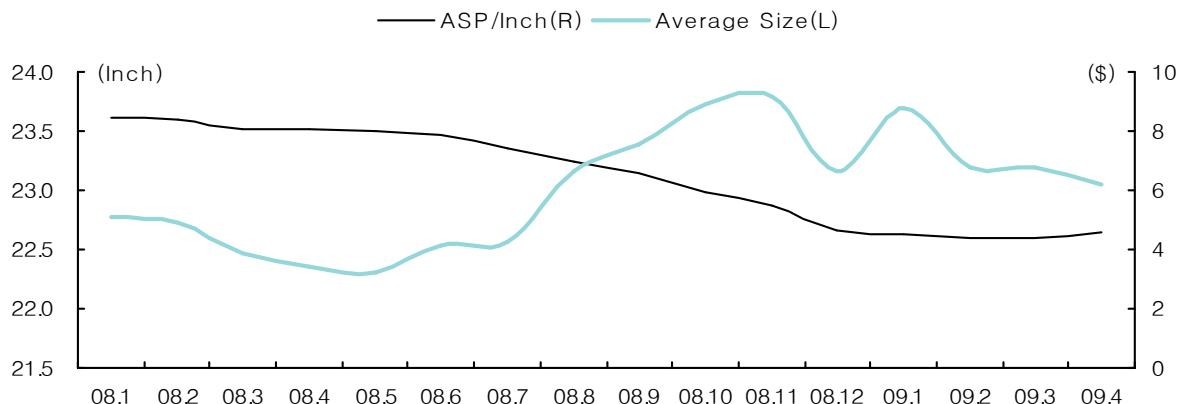
최근 출하가 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 3월부터 LCD패널 출하가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수출도 3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 LCD 시장이 호황이었던 2008년보다도 수출 실적이 좋음
- 그러나 하반기 북미, 서유럽 등 주요 소비국의 GDP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그칠 전망이므로 디지털가전의 소비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 따라서 최근 패널 출하가 증가하는 추세는 그동안 재고를 소진한 세트 업체들이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과정일 가능성도 있음
- 다만 5월과 6월에도 출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실제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며 하반기 긍정적인 시장상황을 기대할 수 있음

하반기 국내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이나 공급과잉 우려

- 지난해 12월 이후 패널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근 출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LCD패널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 특히 상대적으로 원가경쟁력이 앞서고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높은 국내 업체들은 2/4분기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만업체들과의 격차를 유지할 듯
- 평균 패널 가격은 지난 2월 4.4달러를 기록한 후 2개월 사이 오히려 0.2달러가 상승하는 등 지난 해 6월 이후 지속된 가격 하락은 일단 안정된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내외 패널 업체들은 금년 중 생산능력을 면적 기준 10~30%씩 증설할 예정이며 이미 가동률이 100% 수준인 국내 업체들만 계획대로 증설을 추진해도 전 세계 패널 공급 능력은 15% 정도 증가할 전망
- 하반기 수요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공급과잉으로 인해 3/4분기에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 존재

그림7 | LCD패널 평균크기 및 인치당 평균가격 동향



자료 : Display Bank

3. 이동통신단말기 : 상반기 선방과 경쟁사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 확대

표6 | 전세계 이동통신단말기 출하량 증가율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전세계출하량 증가율	24	11.9	12.9	14.0	1.8	-8.0	4.3	-15.8	-13.0	1.0	8.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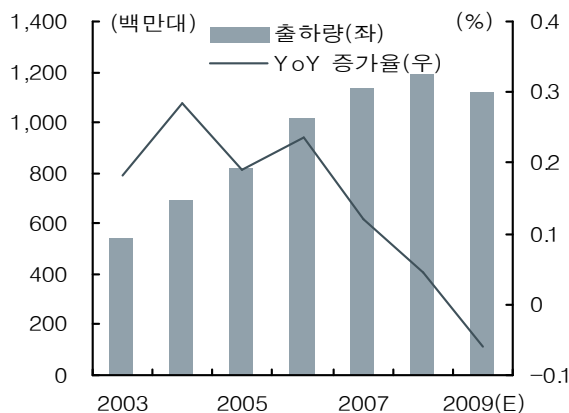
주 : 전세계 출하량은 종전 상위 5개사 기준 집계에서 전체 출하량 기준으로 변경

자료 :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반기 중 국내업체는 경쟁사 대비 출하량 감소가 적고, 영업이익률이 상승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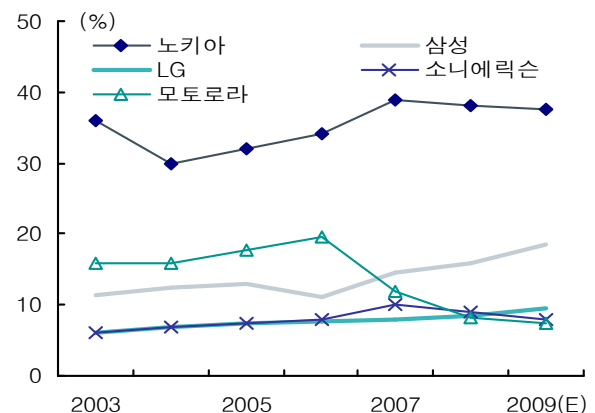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기가 위축되며 2009년 상반기 이동통신단말기 출하량은 전년동기비 14% 감소한 5.1억대로 추정
- 국내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과 LG도 전년동기비 출하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경쟁사인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의 심각한 부진으로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상승
 - 2009 상반기 시장점유율 : 삼성(19.1%), LG(9.4%)로 추정됨
-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점유율 절대 강자인 노키아의 시장점유율도 소폭 하락하며,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는 노키아, 삼성, LG의 3강 체제가 구축되는 모습
- 수익성 측면에서도 국내 업체의 선전은 더욱 두드러짐. 2007년부터 영업손실을 기록중인 모토로라와 2008년 이후 영업손실인 소니에릭슨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는 오히려 2008년 하반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확대
- 경기침체로 저가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하이엔드 피쳐폰 및 스마트폰 등 고가폰에 대한 수요도 성장하여, 경기침체로 휴대폰 시장에 대한 소비는 양극화

그림8 | 전세계 휴대폰 출하량



자료 :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9 | 주요 제조사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 각사 자료,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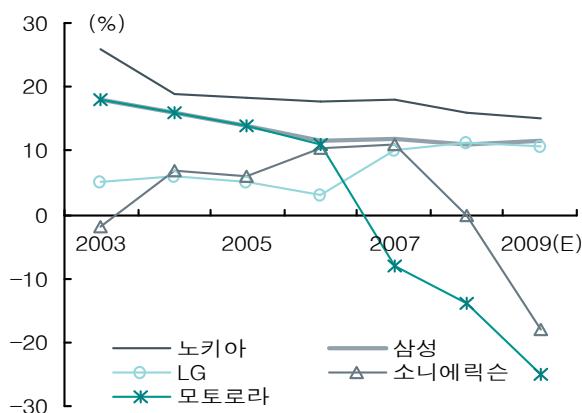
2009년 하반기 이후에도 반사이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며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을 확대할 전망

- 휴대폰 전세계 출하량은 2009년 -5.9%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출하량은 5% 정도 증가할 듯
- 세계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소비가 고가모델, 저가모델로 양극화 됨에 따라 폴터치폰, Qwerty폰 등 하이엔드 피쳐폰에 강점이 있는 국내 제조사의 영업이익은 더욱 확대될 것
 - 스마트폰 등 고가폰은 ASP가 높아 판매대수에 비해 매출액 비중이 크며 영업이익도 큼
- 특히, 소니에릭슨의 시장점유율이 컸던 유럽시장에서 소니에릭슨이 부진함에 따라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질 전망
- 국내 업체들의 선전은 신규 모델 출시 속도나 기술적 우위 외에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에서 통신사의 입김이 거세지는 추세에서 통신사에 대한 영업력 우위에 따른 영향이 크며, 이러한 역량은 향후 경쟁사에 의해 쉽게 잠식되지는 않을 전망

향후 휴대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할 스마트폰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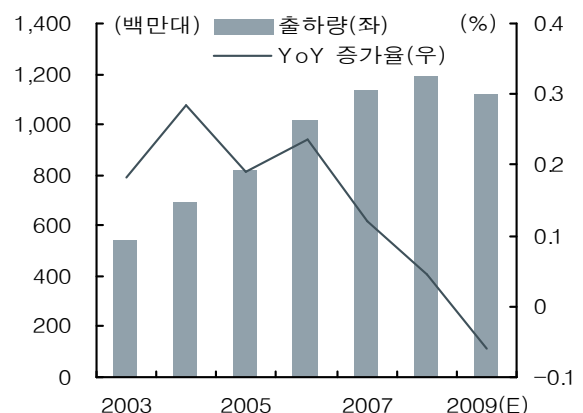
- 스마트폰은 현재 전체 휴대폰 물량의 13~4% 수준이나 경기침체기였던 지난 상반기에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향후 휴대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할 아이টে으로 주목
- 스마트폰은 기존 고가폰과 비교해도 판매대수당 영업이익이 크게 높아 지속적인 R&D 및 신규모델 출시가 필요한 휴대폰 제조사의 수익성을 좌우할 요인이 될 것
- 하이엔드 피쳐폰에서 강세를 보였던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가폰인 스마트폰의 시장확대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점은 국내 업체에게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
 - 국내 업체들이 하이엔드 피쳐폰에서의 강점을 스마트폰 시장으로 이어갈 지는 미지수

그림10 | 주요 제조사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각사 자료,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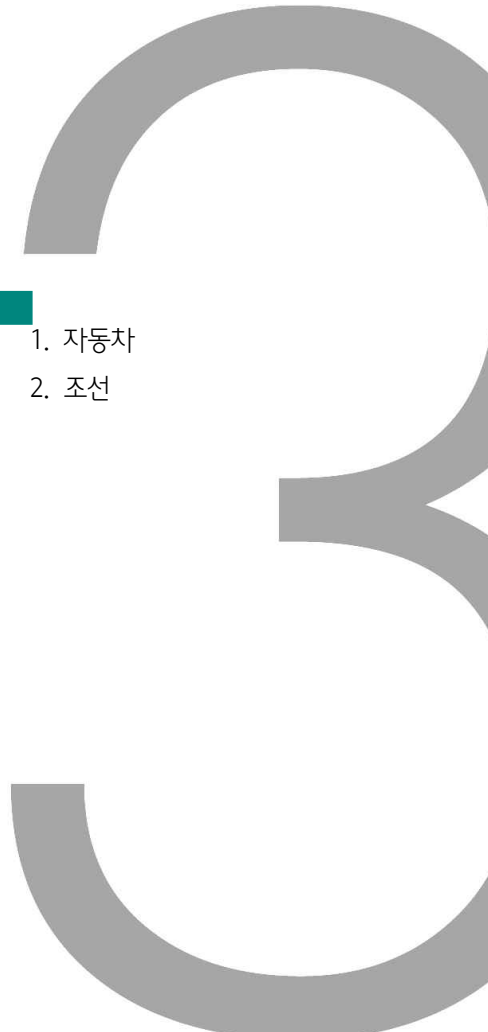

그림11 | 스마트폰 출하량 및 비중



자료 :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계산업군

Machinery

- 
- 
- 1. 자동차
 - 2. 조선

1. 자동차 : 내수, 수출 하락세 둔화되고 있으나 업체별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

표7 | 국내 자동차 수급 증감률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생산	3.8	6.4	3.6	-2.9	-11.9	-14.0	-6.4	-31.9	-25.8	5.5	0.3	-14.4
내수	1.9	4.7	3.8	2.2	-9.1	-17.3	-5.3	-14.9	2.5	0.5	-0.1	-3.1
수출	2.4	7.5	2.6	-2.7	-11.2	-11.5	-5.7	-36.6	-34.4	11.3	6.2	-15.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Hana Forecast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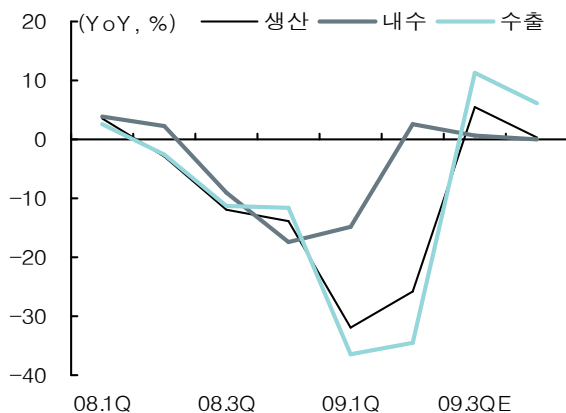
정부의 자동차 판매 부양책으로 인해 2/4분기 내수 판매는 전년동기비 2.5% 증가 예상

- 2009년 1/4분기는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정부의 개별소비세 한시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기비 **14.9%** 감소
- 2009년 2/4분기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전년동기비 **2.5%**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의 노후차량교체 세제지원이 5월1일부터 시작되면서 그동안 정부정책 확정을 기다리던 대기수요자들의 판매가 증가한 것에 기인

각국 산업부양책 및 미국 업체의 불확실성 감소로 수출량은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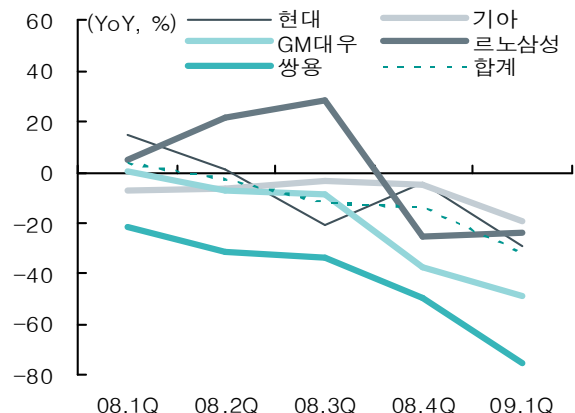
- 2009년 1/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본격화로 수요가 위축되었고, 국내 일부업체들은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해외영업에 차질을 겪으면서 수출량은 전년동기비 **36.6%** 크게 감소
- 각국은 자동차 판매부양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크라이슬러, GM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로 북미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2009년 2/4분기 수출량은 전분기비 **2.2%p** 소폭 상승 예상

그림12 | 국내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량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3 | 업체별 생산량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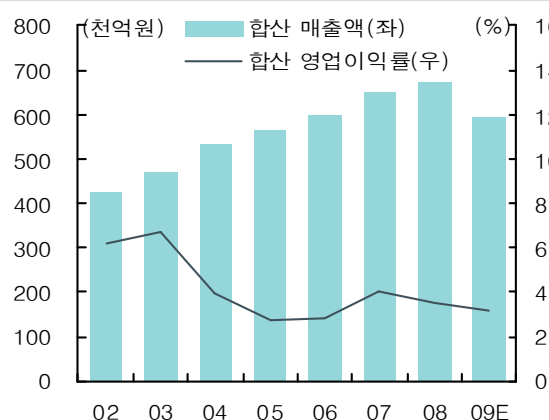
산업부양책 효과와 부실업체 경영악화가 공존하지만 하반기 수출회복으로 산업경기 개선 전망

- 6월 개별소비세 30% 감면 정책이 종료되지만 노후차 교체수요는 당분간 지속되어 3/4분기 내수 판매는 전년동기비 0.5% 증가, 하반기 0.2% 증가로 수요가 회복될 전망
- 각국 정부의 산업부양책 효과로 서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판매가 개선되어 수출량은 3/4분기 전년동기비 11.3% 증가, 하반기 8.3% 증가가 예상
- 하반기에는 인위적인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실효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 위축세가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경제회복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런 수요 회복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음

업체별 신차출시 및 경영회복으로 판매확대 노력이 가속화되지만 산업의 성장 및 이익은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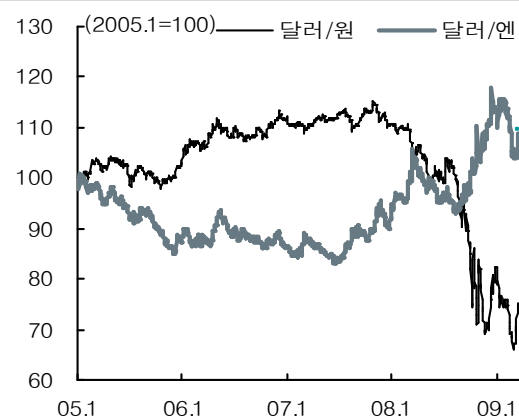
- GM대우는 3/4분기 모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산 및 판매가 저조할 것이지만 4/4분기 경영이 점차 회복되고 신차를 출시하면서 영업활동이 점차 개선될 전망
- 현대기아는 GM,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 기간 동안 글로벌 판매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하반기 신차출시로 제품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상승된 점유율을 유지할 전망
- 르노삼성에는 하반기 르노제품 베이스의 신차(7월 SM3, 12월 SM5 후속)를 출시하고 이로 인해 수출모델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50% 이상 크게 감소했던 수출물량이 4/4분기 이후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원화상승, 엔화하락의 환율추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가 상승세는 수익성이 낮은 소형차급 이하의 판매 비중을 확대시켜서 주요 업체 연간 합산매출액은 전년비 11.3% 감소,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전년비 0.5%p 하락한 3.1% 예상

그림14 | 5개 완성차업체 합산매출액 및 이익률



자료 : Kis-value, Enguid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5 | 주요 환율 추이



자료 : Datastream

표8 |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 관련지표 증감률

(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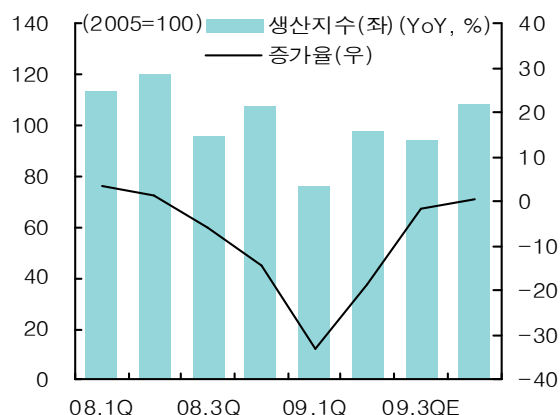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생산지수	7.3	6.3	3.7	1.3	-5.8	-14.4	-4.0	-32.8	-18.6	-1.6	0.7	-13.8
출하지수	7.7	6.9	4.5	1.4	-5.8	-12.5	-3.3	-32.2	-16.2	-2.9	-0.9	-13.6
재고지수	9.5	2.2	-4.2	-0.4	5.8	1.2	-4.0	-5.2	-14.3	-17.7	-12.3	-8.6

자료 : 통계청 광공업 생산지수(자동차부품제조업), Hana Forecasting Model

연간 완성차 생산량 감소와 소형차 부품비중 확대로 인해 업종 매출액 및 수익성은 낮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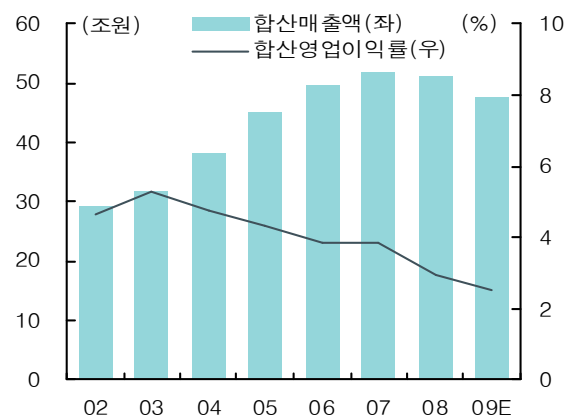
- 완성차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2009년 2/4분기 자동차부품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18.6% 하락, 전분기비 14.3%p 상승하면서 감소폭이 축소
- 하반기 완성차 판매가 점차 회복되면서 자동차부품제조업 생산지수는 3/4분기 전년동기비 1.6% 하락, 하반기 0.4% 하락하여 생산 감소세는 크게 완화될 전망
- 완성차 생산대수 감소와 부품단가가 낮은 소형차종 매출비중 확대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합산매출액은 전년비 6.9% 감소한 47.8조원, 영업이익률은 전년비 0.5%p 하락한 2.5%로 낮은 수익성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품질대비 저가부품을 납품받기 위해 국내 업체들의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부품업체들의 매출처는 다변화되고, 직수출이 증가할 전망
- 국산 하이브리드차량이 7월 이후 출시될 예정으로 유가 상승 및 정부 보조금의 영향으로 양호한 판매실적이 기대되므로 친환경 부품업체들의 성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

그림16 | 자동차부품제조업 생산지수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17 | 자동차부품업종 합산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주 : 자동차부품제조업(D34300) 외감이상 업체기준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조선 : 신규 수주가 없어 수주잔량 지속 감소

표9 | 국내 조선업체 수주잔량

(만CGT, 연말/분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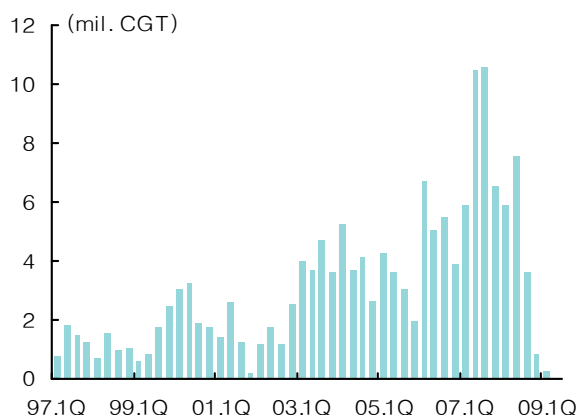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수주잔량	4,464	6,555	6,860	6,986	7,264	6,928	6,928	6,469	6,010	5,560	5,059	5,059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반기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신규수주는 전무한 상황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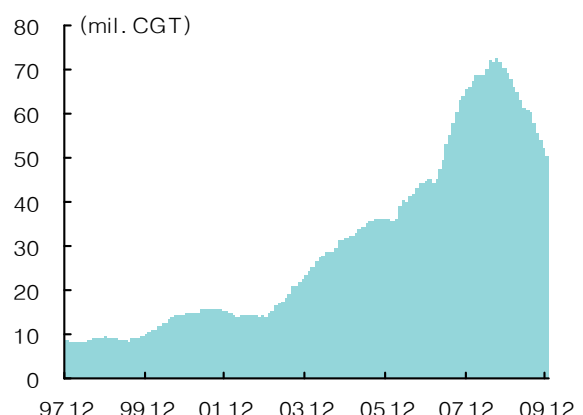
- 국내 조선업체의 상반기 신규수주는 몇 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 계약의 재계약 수준에 그쳤음. 세계적으로도 신규수주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자국 생산물량의 발주수준
- 국내 신조계약취소는 2008년 RG미발급 분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2009년 상반기에는 주로 구조조정 중인 조선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 한편 2009년 상반기 생산물량은 대부분 선수금이 상당부분 입금되어 계약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며,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28.1% 증가한 902만CGT로 추정됨
- 수주잔량은 신규 수주는 없는 가운데 생산증가로 빠르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14.0% 감소한 6,010만CGT로 추정. 이는 3년간 생산물량으로 볼 수 있으나, 인도지연요청과 계약취소가 지속되고 있어 수주잔량의 유효성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2009년 1/4분기 대부분의 제철소에서 후판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고선가물량 생산과 후판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은 2/4분기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
- 2009년 1/4분기 주요 조선업체 영업이익률은 최고가 후판투입으로 8% 내외에 그쳤으나 2/4분기에는 9% 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

그림18 | 국내 신규수주량 추이



자료 : Clarkson

그림19 | 국내 수주잔량 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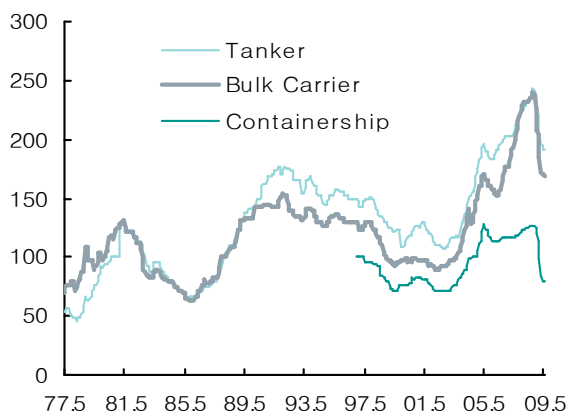
하반기 수주가능성 낮은 반면 생산은 꾸준히 증가, 수익성 호조에도 유동성 악화될 전망

- 하반기 일부 해양플랜트 발주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상선부분은 발주가능성이 매우 낮아 중소조선의 신규수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하반기 생산량은 전년동기비 21.9% 성장한 966만CGT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수주잔량은 전년동기비 27.0% 감소한 5,059만CGT 수준이 될 전망
- 한편 2009년 연간 인도예정인 2,130만CGT에 비하여, 실제 인도량은 선주의 인도연기, 조선소 인도지연, 발주취소 등으로 12.3% 낮은 수준이 될 전망

신규수주 전무 지속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발생하지만 매출성장, 수익성 향상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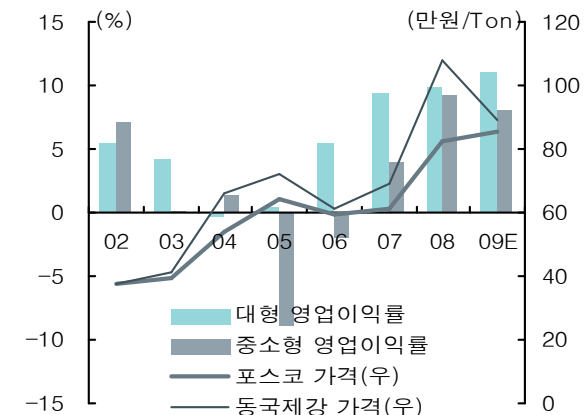
- 차입규모가 매우 적었던 대형조선소의 경우, 2008년 전년대비 38% 증가했던 차입금 규모가 2009년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96.5%나 증가
- 2009년 1/4분기 대형조선소의 단기금융상품 규모가 200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현금성자산이 소폭 증가하여 현금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주요 조선소 매출채권회전기간은 2008년 말 60일에서 2009년 1/4분기에는 81일로 증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요인도 있겠지만, 선박대금 입금이 일부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
- 상반기 주요 업체들의 회사채 및 제작금융 조달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중소형조선소는 회사채 발생이 쉽지 않고 제작금융 조달 또한 어려워 일부 중소조선은 하반기에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전망
- 생산량 증가로 하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19%내외 성장하며, 낮아진 후판가격으로 수익성은 향상되어 주요 대형 조선소 영업이익률은 11% 내외, 중소조선 영업이익률은 8% 내외가 될 전망

그림20 | 선종별 신조선가 Index 추이



자료 : Clarkson (Jan 1988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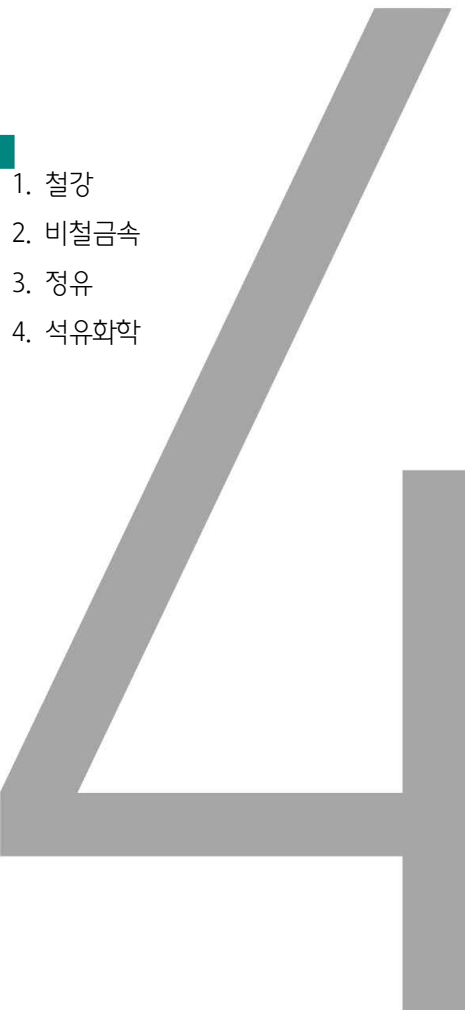

그림21 | 후판가격과 조선소 수익성 추이 및 전망



자료 : Kis-Value, Steel Daily,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재산업군

Materials

- 
- 
- 1. 철강
 - 2. 비철금속
 - 3. 정유
 - 4. 석유화학

1. 철강 : 롤마진 확대로 수익성 개선될 전망

표10 | 철강 주요 지표

(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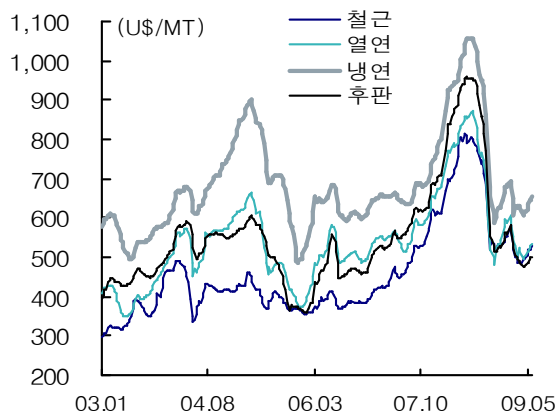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생산지수	4.3	4.9	-5.4	-4.0	-8.2	-15.9	1.2	-28.2	-20.6	-17.1	10.1	-13.9
출하지수	6.1	0.2	-5.6	-4.2	-5.7	-20.9	-0.3	-27.2	-24.9	-21.5	3.4	-17.5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9년 상반기 철강 산업은 과거 경기 침체기보다 더욱 힘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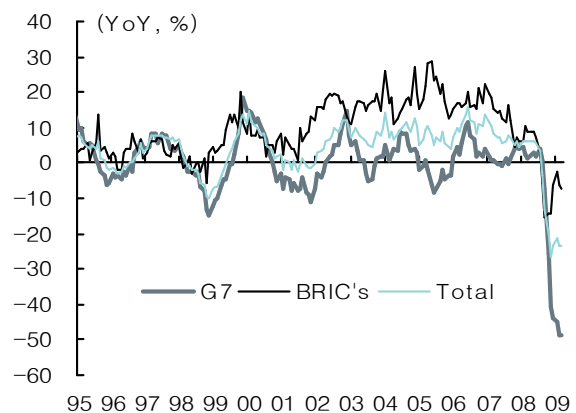
- 2009년 상반기 현재 철강경기는 2008년 7월 이후 급락하는 철강가격과 더불어 하반기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급감에 수익 역시 부진한 상황
- 2009년 1~4월간 국내 조강 생산량은 전년동기비 -19.2% 감소하였는데, 1998년 전년대비 -6%로 감소세를 보인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 예상
- 가동률은 2009년 1월 79%로 저점을 찍고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80%대 초반으로 1997~8년 외환위기 중의 최저점인 85%에 못 미치는 수준
- 업체들의 수익성 역시 작년 4/4분기 이후 과잉재고와 감산에 따른 원가율 상승, 판매단가 하락으로 일관제철업을 제외한 하공정 업체 다수가 2009년 상반기 현재 영업 적자를 기록
- 최근 몇 년간 20% 수준의 영업이익이익률을 기록해온 POSCO의 영업이익이익률이 5%대로 하락했으며, 전기로제강업 역시 수익이 급감한 상태. 산업구조상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냉연업체의 경우 작년 4/4분기 이후 2009년 상반기 현재까지 적자 영업 지속

그림22 | 중국 내수 철강재 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23 | 국제 조강 생산량 증감률 추이



자료 :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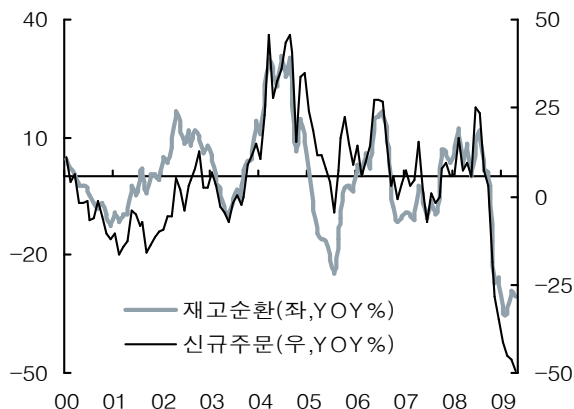
최근 국제 철강시장은 봉형강 위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철강가격 상승 움직임 관찰

- 6월 현재 중국, CIS 지역을 중심으로 철강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중국 보산강철이 7월 내수 단가를 인상한데 이어 해외 주요 메이커들의 가격 인상 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어 글로벌 철강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우세
- 또한 각국 정부의 SOC 투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로 봉형강 위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 국내 시장 역시 5월말 기준 판재류 유통재고가 2007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작년 하반기 이후 업체들의 감산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가전 등의 수요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하반기 국내철강사의 수익성은 롤마진 확대로 상반기 대비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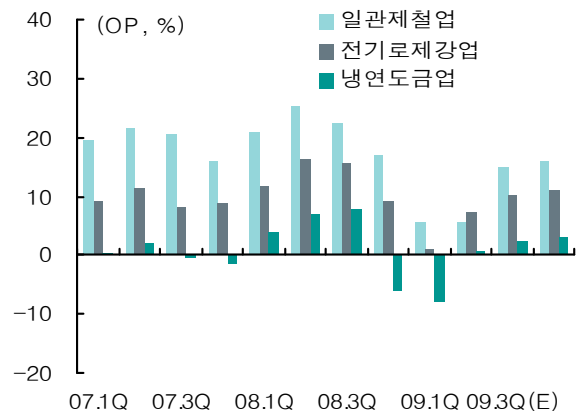
- 최근 국내 업체들이 제품 출하가 인하분 이상의 원재료가 인하 협상에 성공함에 따라 고가 원재료가 소진되는 3/4분기 이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또한 6월 이후 중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 대형 철강사들의 출하가 인상 발표는 국내 철강사들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방어해주는 긍정적 요소
- 주요 전방산업의 경기를 고려하여 상반기 대비 하반기 철강 수요 또한 회복될 것으로 판단. 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추진과 SOC 투자 확대로 건설산업의 공공부문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조선업의 매출액 역시 전년동기비 성장이 예상
- 그러나 1년 가량의 조정기간을 거친 1998년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현 경기 침체가 내수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겹친 것을 감안할 때 2010년 이후에나 추세적인 경기 회복을 전망

그림24 | 미국 철강 산업 재고순환 및 신규주문 현황



자료 : Datastream

그림25 | 국내 철강업종 수익성 전망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비철금속 : 가격 재하락 가능성 낮아 수익성 개선될 전망

표11 | 비철금속 주요 지표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생산지수	2.6	2.4	5.0	-3.5	-0.8	-17.7	-4.3	-20.2	-11.6	-8.9	13.3	-27.4
출하지수	3.0	1.5	7.7	-4.9	-1.8	-18.9	-4.6	-22.1	-5.6	-4.9	14.0	-18.5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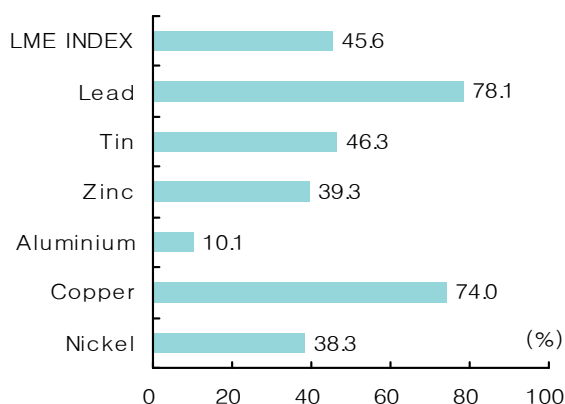
2009년 상반기 비철금속 가격 강세

- 6월 현재 LME 지수는 2008년말 대비 45.6% 상승. 특히 납과 전기동의 가격 상승률이 70% 이상으로 매우 크며, 아연과 니켈도 40% 가까이 상승
- 세계 최대 비철금속 수입국인 중국의 ‘금속비축제도’ 시행과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추진에 따른 단기적 실수요 증가가 최근 비철금속 가격 상승을 견인
- 또한 인플레이션 헤지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약화로 인한 달러약세가 상품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이끌었음

일정수준의 가격 조정 예상되나, 현재 수준은 지지할 듯

- 지속적인 수요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단기 급등으로 일정수준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나, 현재 가격 수준은 지지될 전망
- 중국발 수요증가와 각국 정부의 과잉 유동성 공급, 재정지출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견제심리로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비철금속 가격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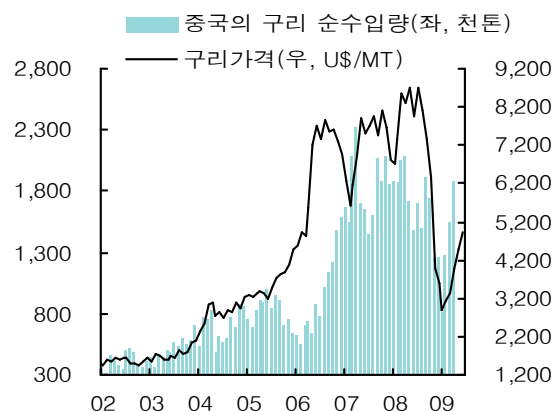
그림26 | 2009년 상반기 비철금속 가격 증가율



주 : 2008년말 대비 6월 현재가 증가율

자료 : Datastream

그림27 | 중국의 구리 순수입량 및 국제가격 추이



주 : 월별 data이며, 최근월은 2009년 4월(순수입량), 6월(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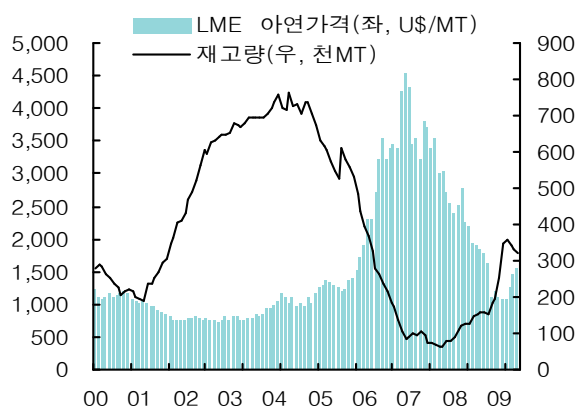
자료 : Datastream

- 지난 2년 동안 공급량 증가로 인해 가격 선조정을 겪은 아연은 금년도 역시 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가격 상승 여력이 큰 것으로 판단
- 구리는 중국 수요량 증가, 달러화 가치 하락, 재고감소 효과로 최근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비수기를 앞두고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니 경기부양책 효과 기대와 상품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그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
- 최근 5월 이후 관찰된 니켈 가격의 급등은 펀더멘털적 요인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감산 및 여름 휴업으로 재고 감소가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가격 강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비철가격 상승의 힘으로 업계 수익성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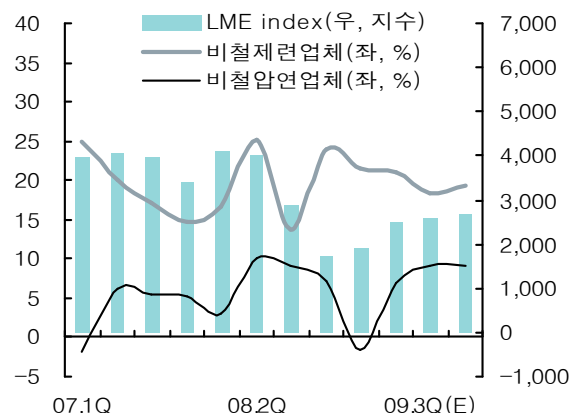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국면에서 회복기로 돌아서는 단계에서 정부의 SOC 투자를 비롯한 경기부양책이 산업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재 경기와 밀접한 비철금속은 철강 대비 그 수혜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임
- 반면 LME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철금속은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경기 회복기에 가수요의 영향과 함께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가격상승이 업체의 제품 가격에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종의 경기 민감도가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1/4분기 수요 위축, 감산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이익기여도가 높은 은 등의 부산물 판매량을 증가시킴으로써 20%대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한 제련업체는 메탈가격 상승으로 하반기의 업황이 더욱 개선될 전망
- 롤마진 및 가동률 측면에서 최악이었던 1/4분기에 BEP 수준의 수익을 시현한 압연업체 역시 2/4분기 이후 고가 원료 소진에 따른 롤마진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 그러나 2009년내 경기침체 이전 수준의 수요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아 업황의 추세적 회복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

그림28 | LME 아연 가격 및 재고 추이



자료 : Datastream

그림29 | 국내 비철금속 업종 수익성 추이 및 전망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정유 : 실물경기 회복 지연,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소폭 하락될 듯

표12 | 정유제품 수급

(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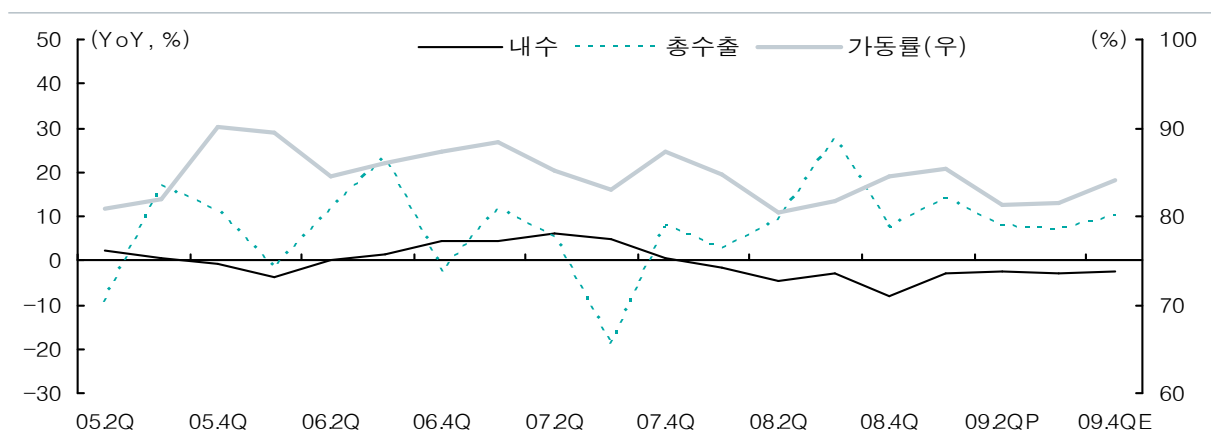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내수	0.5	3.8	-1.5	-4.7	-2.8	-8.1	-4.3	-2.8	-2.5	-3.0	-2.4	-2.7
수출	7.7	-0.1	2.7	9.1	27.7	7.4	11.7	14.1	8.0	7.0	10.0	9.5

자료 : Petronet,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반기 정유부문 이익 감소분을 석유화학 및 석유개발사업부문에서 보완

- 6월 현재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제품단가 역시 동반 상승하여 가격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음. 게다가 가동률도 전년동기비 1.5%p 정도 상승한 83.3%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제마진 향상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석유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경유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신종플루에 대한 심리적 우려가 희석되면서 항공유 가격도 강세를 보여 정제마진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음
- 특히 내수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확대가 지속되면서 1/4분기 재고 부담이 완화된 것도 수익성 개선에 일조
- 그러나 5월 정제마진이 전월대비 60%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6월 정제마진 개선 폭도 크지 않았으며,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수출채산성이 소폭 둔화됨에 따라 2/4분기 전체 정제마진은 전분기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다만, 유가 및 유화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개발사업 및 석유화학사업부문의 이익 증가로 정유부문의 이익 감소가 일부 상쇄. 이에 따라 2/4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대비 2~3%p 하락한 5~6% 수준, 상반기 평균 6~7% 수준으로 예상

그림30 | 국내 석유제품의 내수 및 수출 증가율



자료 : Petronet,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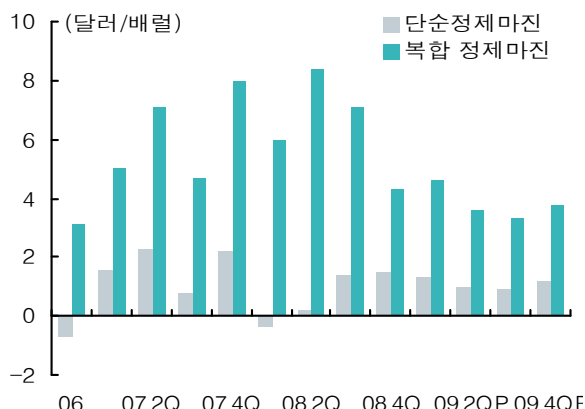
하반기 정제마진은 상반기 대비 20% 내외 감소할 전망

- 연말로 갈수록 계절적 성수기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비가 늘면서 내수 및 수출량이 전년동기비 각각 **-2.7%**,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는 상반기의 **-2.7%**, **11.0%**에 비해 내수는 정체, 수출은 소폭 하락한 것이며, 가동률도 **82.8%**로 상반기 대비 **0.4%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실질소비 증가는 미미할 듯
- 수출 증가세가 소폭 하락한 것은 2/4분기 중국의 수입 증가에 따른 재고 확보로 3/4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비 **7%** 증가에 그친 것에 기인하며, 4/4분기에는 경기 회복 기대와 재고 소진,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소비가 다시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10%**에 달할 전망
- 특히 국내 제조업 가동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소폭 개선되면서 하반기 내수 출하 감소세가 정체되는 점은 **80%** 이상의 가동률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하반기 동안 두바이유가가 **7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물경기 회복 속도가 더뎠을 경우 원가 상승분 반영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하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점도 수출채산성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결국 하반기 정제마진은 상반기 대비 **20%** 정도 감소, 전년동기비 **30~40%** 감소할 전망

전체 영업이익률은 상반기에 비해 1.5%p 정도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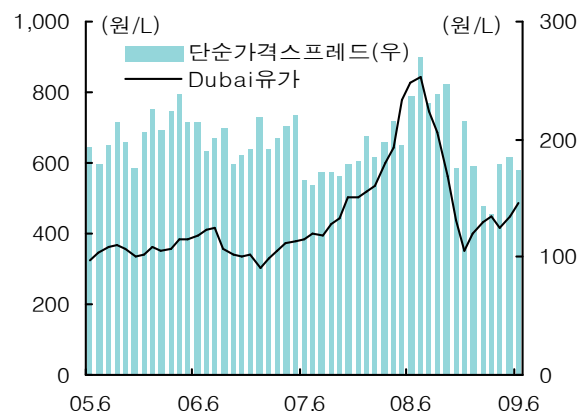
- 하반기 공급과잉 심화로 유화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나 수익성 악화가 심각했던 전년동기에 비해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석유개발사업의 이익 기여도도 향상될 전망
- 또한 고도화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고급석유제품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평균 영업이익률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은 편임
- 이에 따라 하반기 전체 영업이익률은 평균 **4.5~5.5%**로 상반기 대비 **1.5%p** 정도 하락하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0%p**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그림31 | 정제마진 전망



자료 : Petronet,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32 | 석유제품 가격스프레드와 두바이유가



자료 : Petronet,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 석유화학 : 양호한 수준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하락 불가피

표13 | 석유화학제품 수급

(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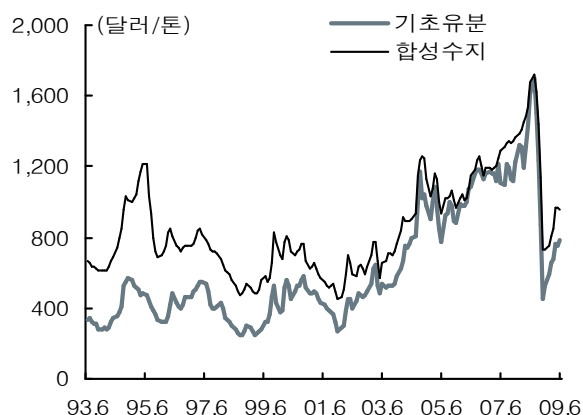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내수	2.0	2.8	1.8	-0.1	-6.9	-21.8	-6.9	-7.9	-7.2	-4.4	-10.5	-6.6
수출	-1.3	4.4	14.8	1.2	5.2	-0.7	4.9	13.4	13.7	-2.7	-13.3	3.4

자료 : KOSIS, KPIA,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반기동안 중국 수요 증가, 북미지역 업체의 가동률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 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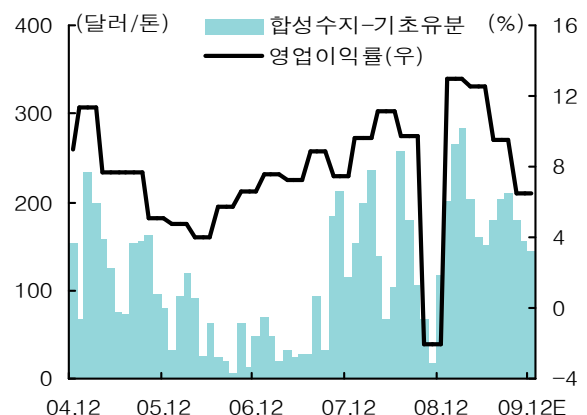
- 1/4분기, 2/4분기 내수는 소비 및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각각 7.9%, 7.2% 감소하여 7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반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호조세로 수출량이 전년동기비 각각 13.4%, 13.7% 증가. 이에 따라 상반기 출하량이 전년동기비 3.6% 증가
- 중국의 경기 부양 및 수출 진작을 위한 정책, 각국의 경기 부양정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데 반해 유럽과 북미지역 화학업체의 공장가동 중단 및 수익성 악화로 가동률을 축소하면서 국내 화학업체들이 수출 호조의 반사이익을 향유한 것에 기인
- 또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합성수지 제품단가가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반면, 국제 유가 및 나프타 가격이 4월까지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어 가격 스프레드도 확대
- 특히 1/4분기말부터 기구매된 높은 가격의 원재료 투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원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도 가동률 상승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에 일조
- 6월말 현재 중동의 대규모 증설 물량 출회를 앞두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부 플랜트의 신규 가동이 다소 지연되고, 유가마저 상승세를 보여 제품 단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수익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반기 유화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그림33 | 석유화학제품 가격 추이



자료 : Datastream

그림34 | 합성수지 가격 스프레드와 영업이익률



주 : 스프레드는 월평균, 영업이익률은 분기 평균 기준임

자료 : Datastream, Kis-Value,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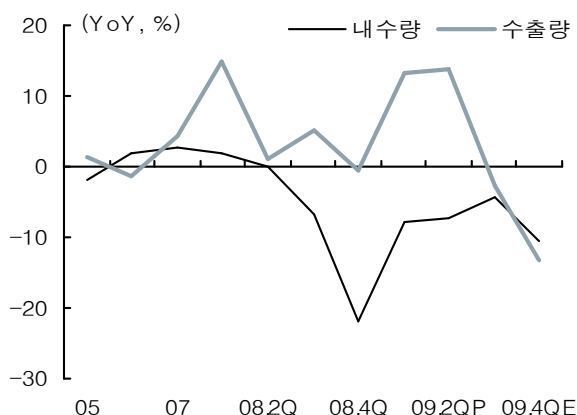
연말로 갈수록 경쟁 심화 및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듯

- 하반기 중동의 신규 증설 물량 출회가 예정되어 있어 6월 현재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단가 인상 폭이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유럽 및 북미지역의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고, 지연되고 있는 신규 증설 물량의 시장 출회도 점증될 수 밖에 없어 3/4분기부터 출하 둔화 및 스프레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
- 이미 6월 현재 유가가 전년말의 저점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합성수지 가격은 30% 인상에 그쳤으며, 5~6월 동안 유가가 35% 급등하였으나 합성수지 가격은 보험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유화업종의 이익률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희석될 것으로 보이고, 건설,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경기 부진 지속으로 내수가 전년동기비 7.2% 감소할 전망
- 경쟁 심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중국 수입 수요 증가의 한계 등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됨. 특히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근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실질 소비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수입 수요 확대가 제한적이기 때문
- 결국, 공급과잉률 상승에 따른 판매량 감소(하반기 출하량 전년동기비 8% 감소)와 가동률 하락, 가격 인상의 한계와 원가 부담 증가, 원달러 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등으로 하반기 유화업종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하반기 평균 영업이익률 7~8%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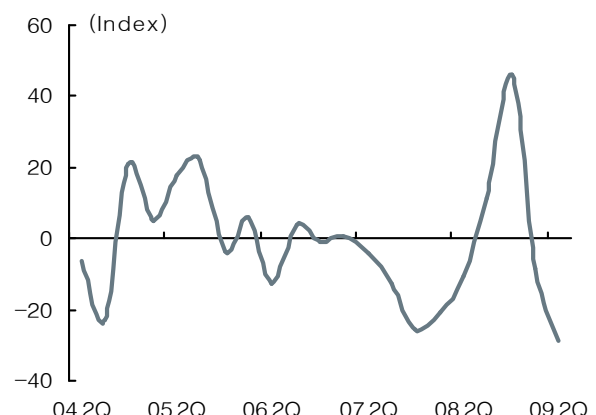
- 하반기 공급과잉 심화 속에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유화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하반기 평균 7~8%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특히 3/4분기보다는 4/4분기 수익성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중동의 신규 증설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림35 | 석유화학제품의 내수 및 수출 증가율



자료 : KOSIS,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36 | 석유화학제품의 재고압력지수 추이




주 : 재고압력지수 = 재고증가율 - 출하증가율

자료 : KOSIS

내수·유통 산업군

Domestic consumption goods,
distribution and transport

- 
1. 의류
 2. 소매유통
 3. 육운
 4. 해운
 5. 제약
 6. 건설

1. 의류 : 최악의 시점은 지났으나, 연내 실질적인 소비 개선은 어려울 듯

표14 | 의류 주요 지표

(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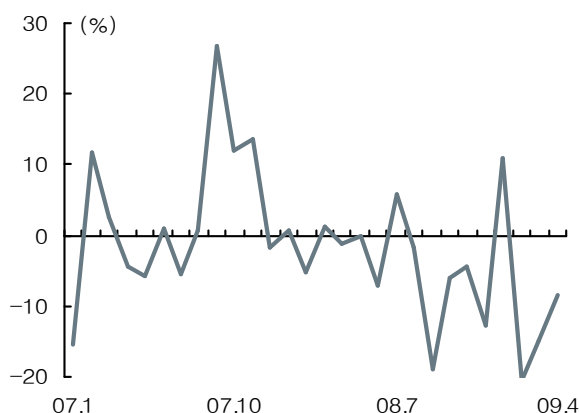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생산지수	9.9	6.1	6.9	-2.2	6.6	-8.7	0.6	-11.4	-4.8	-10.3	5.5	-5.3
출하지수	10.4	8.6	4.4	-0.6	7.6	-6.5	1.2	-6.2	-1.0	-6.9	6.6	-1.8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의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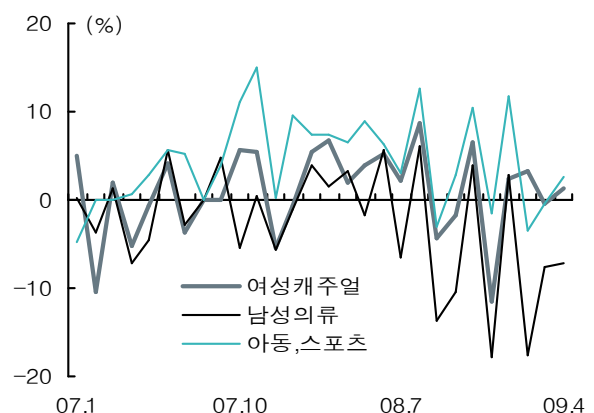
- 소비지출 관련 지수가 3월을 저점으로 두달 연속 상승하고 있어 의류 소비는 최악의 시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
-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대비 7p 오른 105를 기록하면서 기준치 100을 돌파하였으며, 의류비 지출 전망 CSI지수 역시 전월비 6p 상승하여 96을 기록
- 또한 6월말부터 유통된 5만원권 화폐가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내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실제 할인점 의류 매출액이 여전히 역신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 폭을 줄여가고 있음
- 백화점 의류 매출 역시 북종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거나 4월 매출이 전년동월비 2.8%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모습
- 그 구성을 살펴보면 아동, 스포츠와 여성캐주얼이 각각 2.7%, 1.2%로 성장한데 반해 여성정장(-8.6%)과 남성의류(-7.1%)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37 | 할인점 의류 매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 지식경제부

그림38 | 백화점 의류 매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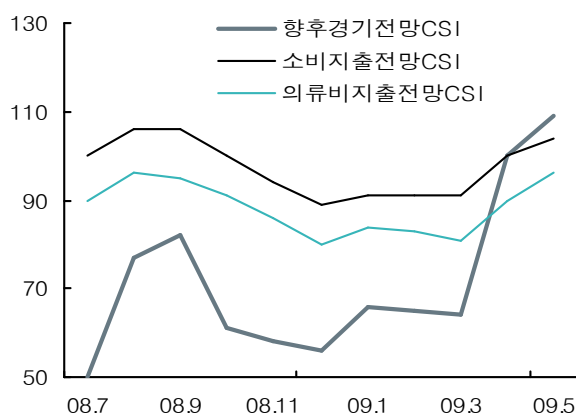
의류 소비는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 기대

- 2008년 4/4분기 급감한 의류 소비가 2009년 들어서는 감소 폭이 완화되고 있으며, 소비 심리 회복,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그러나 2009년 국내 GDP 및 민간소비가 각각 1.9%, 2.2%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눈에 띄는 실질적인 소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09년 국내 의류시장 규모는 연평균 1.2%의 매우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1998년 IMF와 2003년 카드대란 시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이는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과거 불황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완료되었고, 정장/유아동복 등에 국한되었던 제품군도 아웃도어/캐주얼 등의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군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

시장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브랜드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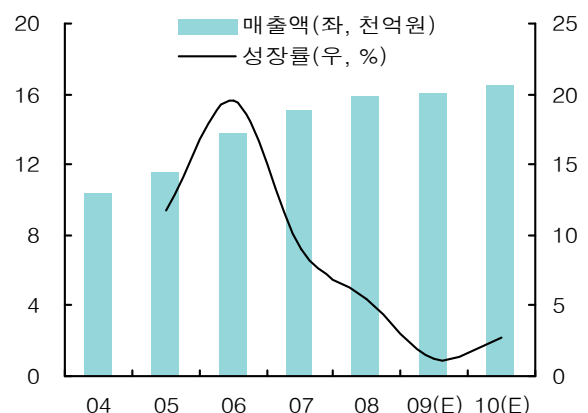
- 대형업체들은 브랜드력, 신제품 론칭 능력,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나, 브랜드 파워가 약한 임가공 위주 중소기업체의 경우 경기 침체로 할인 판매 비중이 늘고, 경쟁 심화로 판관비 부담도 늘어 수익성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 명품의류의 국내 론칭이 증가하고, 브랜드력이 높은 국내 대형사의 공격적인 영업이 예상되어 중견, 중소기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그림39 | 의류소비지출 관련 향후 경기전망



자료 : 한국은행

그림40 | 주요 의류업체의 매출액 및 성장률 전망



주 : 외감이상 196개사 기준

자료 : Kis-Lin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소매유통 : 경기방어적 성향에 의한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점진적 회복

표15 | 소매유통 판매액 지수

(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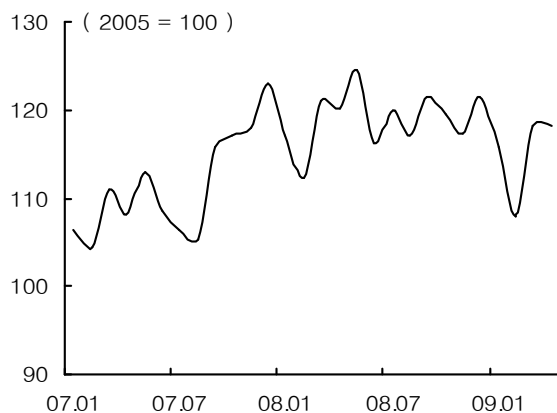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판매액 지수	5.3	5.8	8.9	9.5	9.4	0.1	6.8	-2.4	-1.3	0.6	0.4	-0.7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9년 상반기 소매유통업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합리적인 소비행태의 정착과 고소득층 및 외국인의 양호한 소비로 인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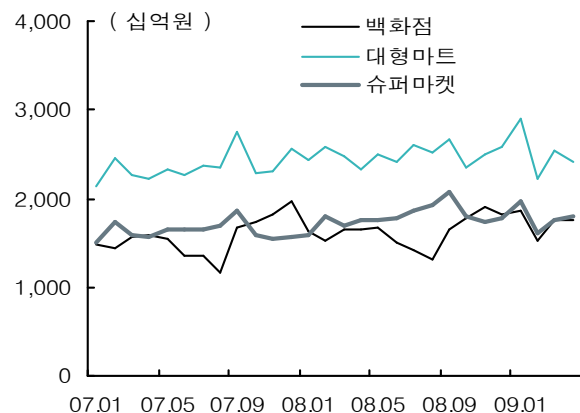
- 외환위기와 카드사태의 중간 수준의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소매유통부분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침체의 골이 깊지 않음
- 기업의 투자 위축과 유흥 및 여가를 위한 소비가 침체된 것에 비해 생필품 등 유통 채널을 통한 소비는 예상보다 양호하여 소매유통업은 경기방어적인 모습을 보임
- 이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와 카드사태를 거치며 대형마트 위주의 소비 등 합리적인 소비행태가 정착하여 다른 소비보다 유통채널의 소비는 경기침체에 덜 민감하기 때문임
- 반면, 소득격차 확대에 따라 경기변동에 영향이 적은 고소득층의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아 백화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품 등 고소득층 매출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
- 고환율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증가로 인한 면세점 등 소비의 증가도 소매유통의 침체 완화에 기여
- 이러한 유통채널을 통한 소비행태에 따라 유통 채널 중 가장 비중이 큰 대형마트의 매출은 중산층의 소비 침체로 상당히 감소한 것에 비해, 고가품 매출 비중이 큰 백화점이나 거주지 밀착형의 이점이 있는 슈퍼마켓은 상대적으로 선전

그림41 | 소매 판매액 지수



자료 : 통계청

그림42 | 소매업체별 월별 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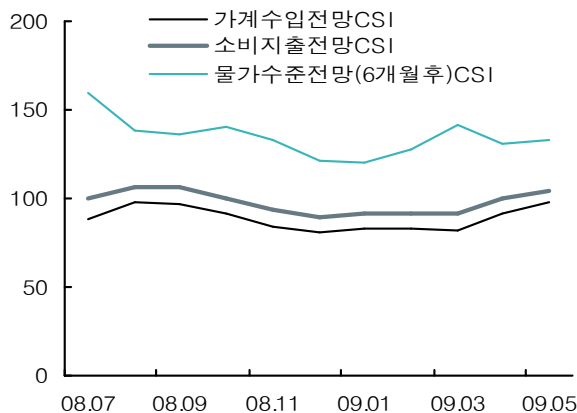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소매유통업은 경기 순환상 저점을 이미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나 경기방어적 성격으로 다른 산업대비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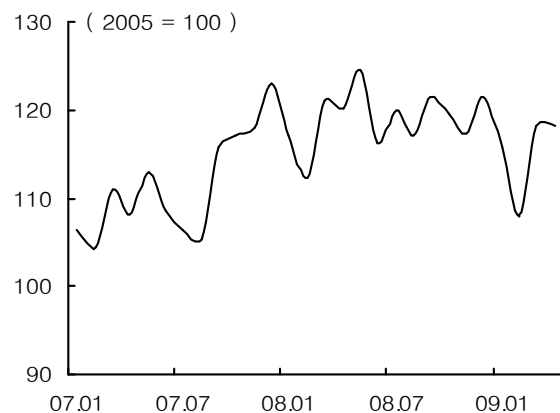
- 소매유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침체가 심하지 않았고, 가계수입전망CSI나 소비지출전망CSI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소매유통업은 하반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소득 회복될 전망
- 경기방어적인 성향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회복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것
- 소매업태별로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중산층의 소비 수준이 회복되어 대형마트의 성장이 다른 업태에 비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및 유가불안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상승 등이 하반기 소매유통업 회복의 리스크가 될 것
- 소득격차확대 및 소득별, 연령별 소비양극화는 경기 침체에 둔감한 고소득층의 소비로 2009년 상반기 소매유통업의 침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소매유통업의 안정된 성장 및 사업확대에 걸림돌이 될 전망
- 대기업 위주의 국내 주요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유통 전반에 대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 업체별 수익성은 하반기에 크게 회복될 전망
- 주요 유통업체는 중국·러시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경기회복속도에 따라 해외진출 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견조해 질 것
- 반면, 대기업 유통업체가 아닌 중소 규모의 유통업체는 경기회복의 이익을 대형 유통업체에 잠식당하며 큰 회복없이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그림43 |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 통계청

그림44 |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 : 통계청

3. 육운 : 하반기 정부지원, 대기업 사업 강화로 부진이 다소 회복될 전망

표16 | 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화물자동차	15.5	17.7	6.4	7.5	16.7	-2.3	-7.9	-14.3	-11.0	-6.2	3.1	-7.1
소포송달업	16.7	7.4	2.7	4.5	6.1	-1.6	2.8	1.3	7.7	5.2	2.2	4.1

자료 : 통계청 업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Hana Forecast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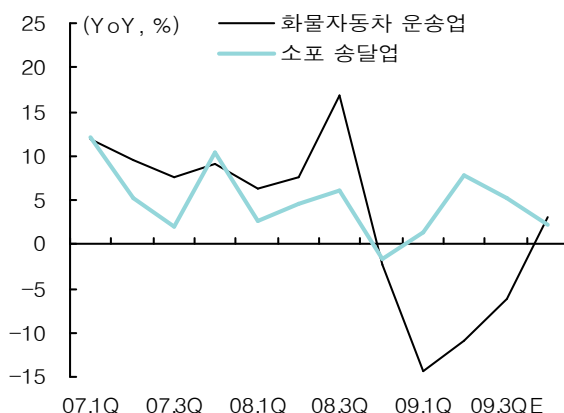
상반기 수출입 감소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은 불황, 전자상거래 상대적 호조로 소포송달업은 성장세 지속

- 2009년 상반기 산업의 수출입량이 크게 감소면서 2/4분기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11.0% 하락, 전분기비 3.4%p 상승하면서 감소폭은 완화되고 있음
- 2008년 말 이후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소매업종 위축에도 전자상거래 분야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2009년 2/4분기 소포송달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7.7% 상승 예상

택배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 완화, 화물연대 파업은 불발로 이어져 업계 영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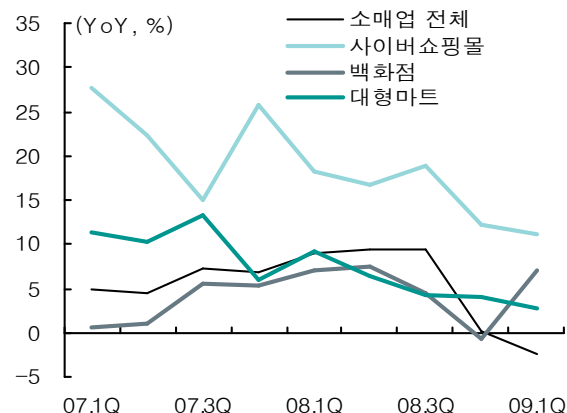
- 대기업 위주로 택배업계가 재편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은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쟁강도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단가경쟁 해소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음
- 개별사업장의 문제로 촉발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차주들의 호응도가 낮아 조기에 철회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업계손실은 과거에 비해 미미함

그림45 | 육상운송업 생산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46 |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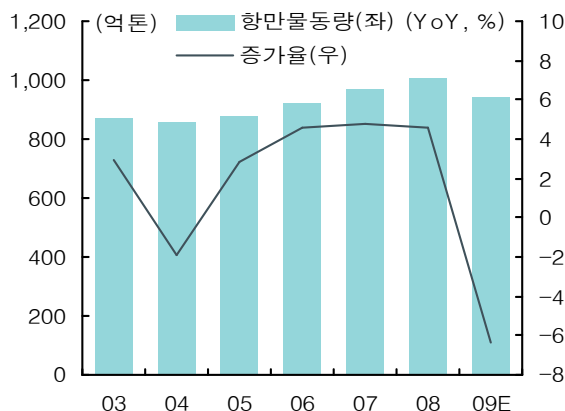
하반기 경기침체 완화로 인해 육상운송업 생산지수는 회복되나 단가인하경쟁으로 수익은 소폭하락

-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던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산업경기는 회복될 전망으로 하반기 화물자동차운송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1.8%** 하락, 상반기비 **10.8%p** 상승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불황속 오프라인쇼핑에 비해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 구매는 꾸준히 증가하여 하반기 소포송달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3.7%** 상승하지만, 경기회복세로 인해 오프라인 소매가 회복되면서 상승세는 상반기비 **0.9%p** 하락할 전망
- 불경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물류사업자들은 물동량 및 물류거점을 확대하고 있어 2009년 육상운송업 합산매출액은 과거대비 성장세가 둔화된 전년비 **6.0%** 성장, 물동량 확보를 위한 단가인하경쟁으로 합산영업이익률은 전년비 **0.3%p** 하락한 **3.3%** 예상

정부의 산업 선진화 정책과 대기업들의 사업영역 확대로 업계의 구조개편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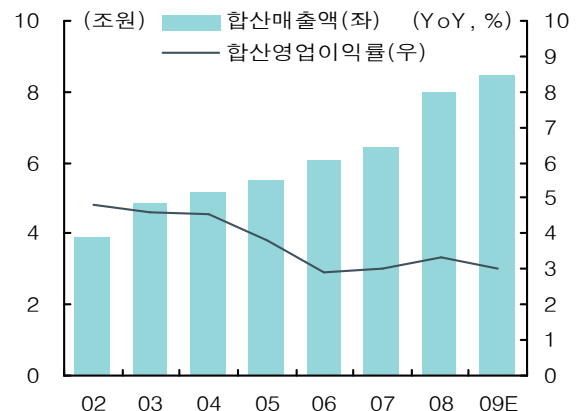
- 대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며 항만물동량 감소로 화물운송사업 부진은 지속되나 택배사업 강화 및 해외사업영역 확대로 매출 성장세는 이어갈 전망
- 2009년 하반기 물동량 감소세는 둔화되지만 산업부진은 지속되고 추가적인 요율 인상은 없을 전망으로 영세업체들의 경영악화 및 퇴출은 계속될 전망
- 정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물류산업선진화방안’을 통해 3자물류비중 확대 가속화, 해외진출 지원 및 다단계, 지입제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산업의 선진화 및 수익을 개선할 방침으로 산업에 긍정적 영향
-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6월 및 하반기에도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물동량 감소상황에서 경쟁심화 해소에 긍정적 영향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출하 감소세 둔화되나, 저수익 구조와 실적양극화 지속

그림47 | 항만 물동량 추이 및 증가율



주 : 화물/컨테이너 처리실적 합계, 환적제외
자료 : 국토해양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48 | 육상운송업 합산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주 : 도로화물운송업(I60300) 외감이상 업체 기준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 해운 : 벌크 운임 변동성은 크고, 전 선종에 걸친 약세는 지속

표17 | 해상운송 매출액 증감률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매출액 증가율	0.8	23.4	87.2	98.1	61.1	39.7	51.9	-14.9	-24.5	-28.1	-24.8	-23.5

자료 : Kis-Value, 주요 해운 9개사 합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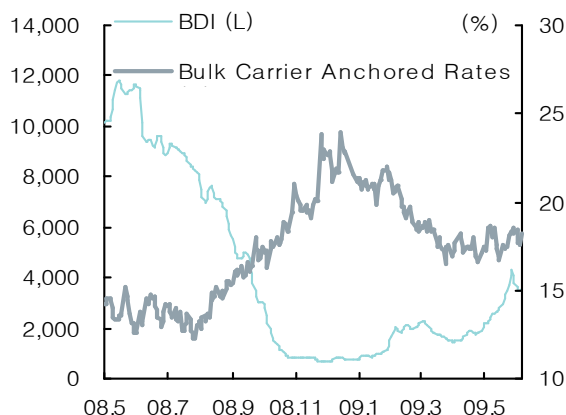
중국 영향만으로 BDI가 4,000p를 상회하는 등 벌크선 시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2009년 상반기 BDI 지수는 중국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음. 2/4분기 중반 이후 중국 철광석 수입 급증으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Spot 시장 중심으로 벌크선 수요가 증가하여 4,000p를 상회하기도 함
- 중국 철강 생산량 증가가 지속되어 주요 항구에 체선이 유지되는 가운데 철광석 수입이 꾸준하다면 단기적 BDI 강세가 예상됨. 하지만 중국 철광석 재고증가와 하반기 벌크선 인도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세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 2009년 하반기에도 중국 수입 물동량에 따라 벌크선 시황은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반적으로는 2,000p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시황은 악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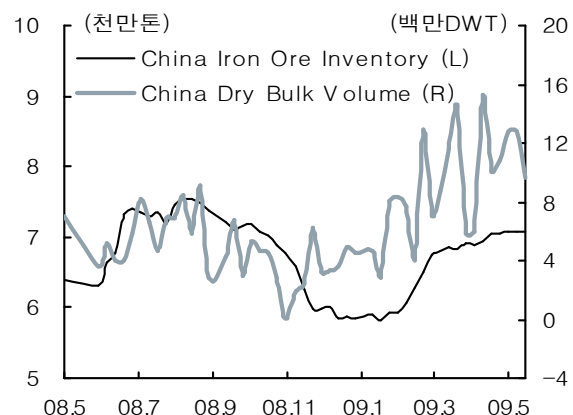
- 유조선 운임은 2009년 1/4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5월에는 WS(BDTI TD3)가 30이하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유가상승과 OPEC의 쿼터 초과생산에 힘입어 반등하였음
- 빠른 유가상승과 OPEC 생산증가로 유조선 시황에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하반기에 선박량 증가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운임의 회복은 제한적이어서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

그림49 | BDI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50 | 중국 철광석 재고량과 벌크 물동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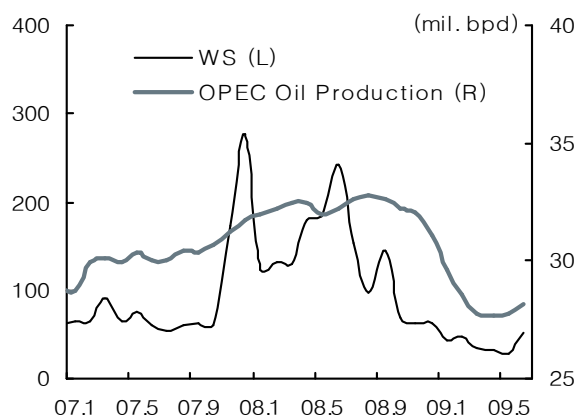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컨테이너선 시황은 선복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물동량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3/4분기 선진국 물동량 회복이 이루어져야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반등하더라도 제선중인 선박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황회복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전망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하여 해운사 위기는 지속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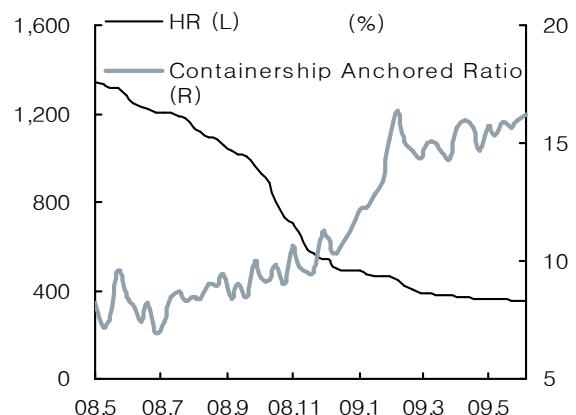
- 2009년 1/4분기 주요 해운업체 매출은 전년동기비 14.9%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비 16%p 하락한 -6.8%를 기록. 2/4분기에도 전년동기비 24.5% 내외의 매출하락과 -7% 내외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컨테이너선 시황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주요 컨테이너선사의 영업적자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 하반기에도 BDI지수는 여전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므로, Spot 위주의 선대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듯. 이에 따라 주요 벌크선사의 영업적자도 지속될 전망
- 3/4분기 주요 해운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28.1% 내외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수익성도 -6% 내외로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
- 따라서 2009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영업이익률도 전년대비 14%p 하락한 -6.5% 수준이 될 전망
- 소수의 전용선, 장기용선만으로 운영하거나 특화된 해운을 영위하는 곳을 제외하면 영업적자 누적과 선박금융조달 문제로 2009년 하반기에도 해운회사의 위기는 지속될 전망

그림51 | WS지수와 OPEC 원유 생산량



주 : WS는 BDTI TD3임
자료 : Bloomberg, Clarkson

그림52 | HR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KMI

5. 제약 : 상반기 중 저점 통과,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예상

표18 | 주요 제약업체 영업 실적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매출액	8.3	11.2	10.8	11.4	10.6	13.2	11.5	3.8	10.8	11.0	11.4	9.4
영업이익률	12.0	11.9	12.1	12.0	10.4	8.9	10.8	9.9	10.0	10.1	10.5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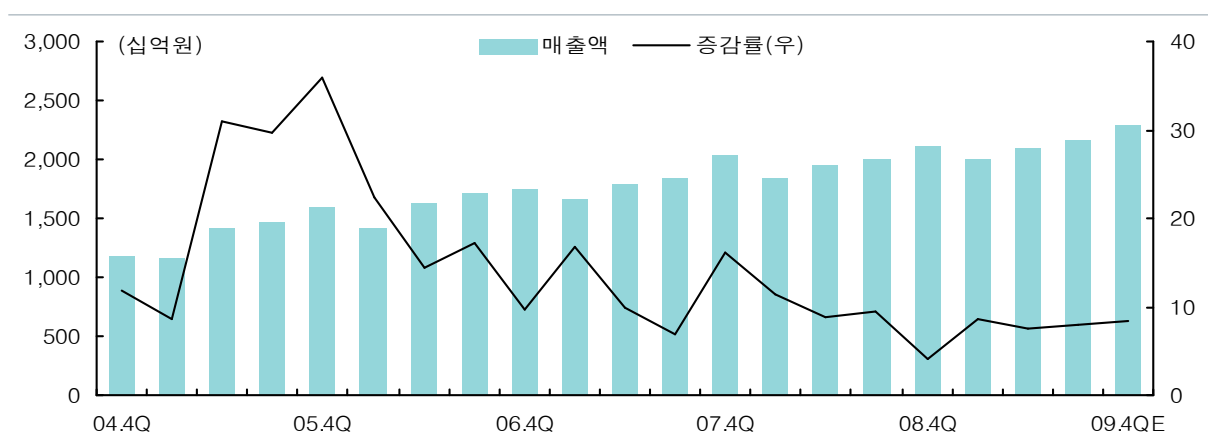
주 : 30개 상장사 기준

자료 : Kis-Value,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반기 중에 경기 저점 통과를 확인할 수 있을 듯

- 1/4분기 원외처방의약품 매출액이 예상을 뛰어넘는 **8.6%**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3년 평균치인 **1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그나마 **2008년 4/4분기에 4%대**의 매우 저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빠른 편
- 비록 대규모 설비투자 진행 및 신규 설비의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1/4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평균 10.8%에 비해 하락한 9.9%**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4/4분기에 비해서는 개선**
- 제약산업의 경기가 부진했던 지난 **4/4분기**와 이번 **1/4분기**에 업체간 실적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즉 매출액 **300억원** 이상 상위 **15개사**의 **1/4분기 영업이익률이 11.4%**에 달했으나 하위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하였고, **4개사**는 영업손실까지 기록
- **2/4분기**에는 예년보다 다소 하락하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향상된 성장세를 기록할 듯. 이는 시장 규모가 큰 제네릭의약품의 출시 지속, 완제품 수출 확대 등에 기인
- 특히 환율 안정으로 수입 원재료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어 수익성이 소폭이나마 개선되어 제약산업의 경기 저점 통과를 확인할 수 있을 듯
- 상위 제약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7.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이익률도 **9.9%**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듯

그림53 | 원외처방의약품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유비케어자료 재인용,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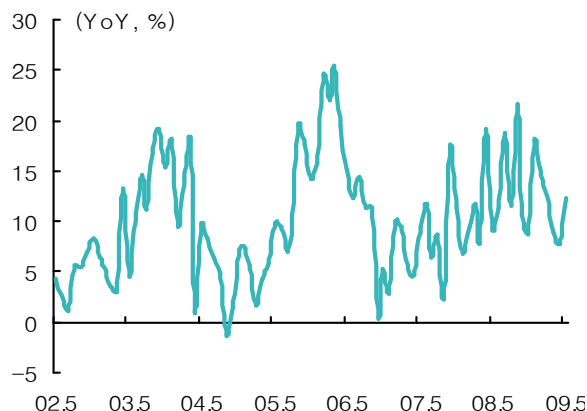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나 예년 수준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

- 전문의약품 중심의 한 원외의약품 매출 성장세는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8.2%** 증가하여 상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 이에 따라 상위 **30개사**의 하반기 합산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11.2%**로 상반기의 **7.4%**에 비해 크게 상승할 전망
- 이는 하반기에도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고, 양호한 수출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특히 지난해 하반기말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도 높은 성장세를 유도할 전망
- 비록 정부의 약가재평가 등 약가 규제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수 밖에 없으나, 경기 상황 및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위험 노출 등에 비해 의료보험재정수지가 여전히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인하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신규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그동안 대형사들의 **R&D** 투자가 실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익기여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다만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반의약품부문의 이익기여도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평균 10.3%로 점진적인 향상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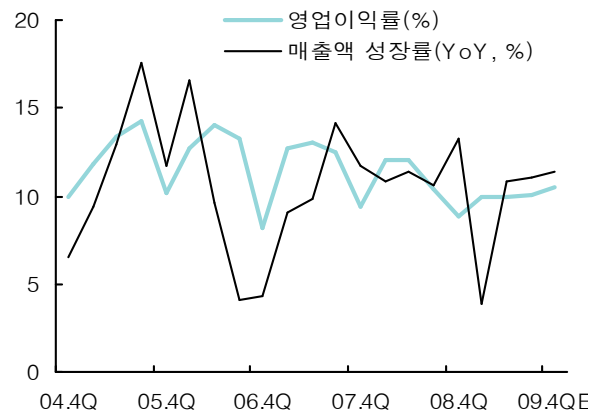
- 하반기 상위 **30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0.3%**로 상반기의 **9.9%**, 전년 **4/4분기 9.7%**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제네릭의약품의 경쟁 심화, 감가상각비 부담 등으로 최근 **3년** 평균치인 **11.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특히 매출액 **300억원** 이하 업체의 경우, 투자 지속이 불가피한 반면 판관비 등 영업비용 축소 폭이 크지 않아 수익성 개선 폭은 미미하여 실적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듯

그림54 | 의약품 도매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자료 : KOSIS

그림55 | 제약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



자료 : Kis-Value,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6. 건설 : 공공부문 호조 지속되나 수주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전망

표19 | 건설투자증감률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2008	1/4	2/4P	3/4E	4/4E	2009E
건설투자	0.5	1.4	-1.9	-0.3	0.2	-5.6	-2.1	1.6	2.5	2.6	3.0	2.5

자료 : 한국은행,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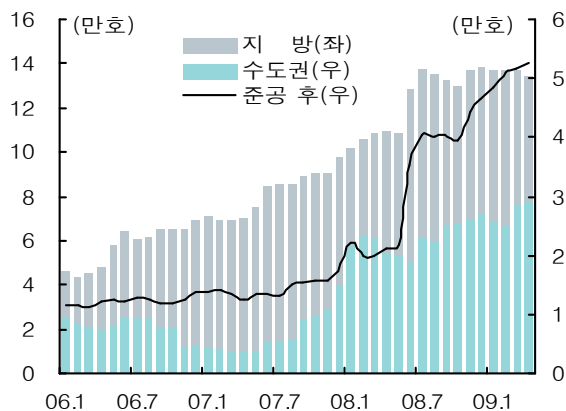
유동성 경색 완화 및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으로 건설업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건설사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고, 상반기 중 1~2차에 걸친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건설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주택가격의 하락세 진정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반등, 주택거래량의 증가 등 지표의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의 개선으로 건설경기의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음
- 1~4월 건축수주가 전년비 50% 감소하는 등 민간주택부문이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공공토목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만회하고 있음

현금흐름은 개선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위험회피전략으로 외형 및 수익성은 저조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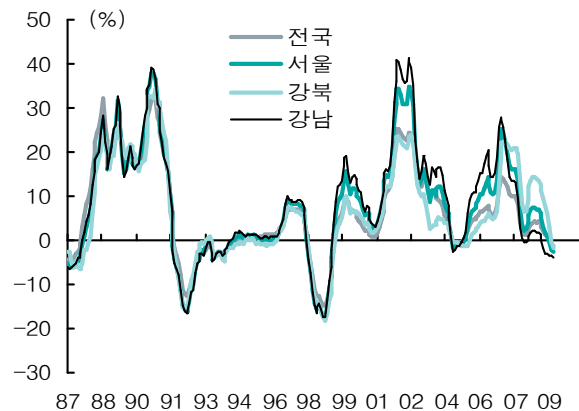
- 공공부문을 통한 매각과 할인판매 등 적극적 프로모션을 통한 미분양물량의 처분, 자구적인 자산 매각, 공공공사 선급금 유입으로 건설사의 현금흐름은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주택분양물량이 급감하고 해외부문 역시 발주지연으로 전년동기비 수주량이 대폭 감소했으며, 수익성 면에서도 대손상각비 및 판촉비용의 증가로 저조한 상태
- 건설사들은 분양위험이 낮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공공토목 수주에 치중하면서 리스크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그림56 | 월별 미분양주택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그림57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추이



자료 : K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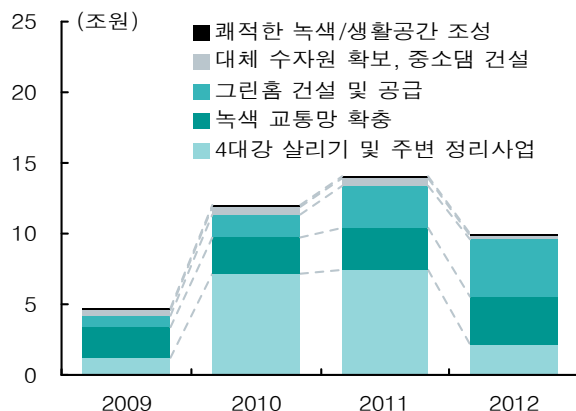
3/4분기 주택시장의 수급여건 악화 우려되지만 공공토목부문의 호조는 계속될 전망

- 건설업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과도한 미분양물량은 건설사의 신규 일반분양 감소와 환매조건부매각제도 및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대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분양 특유의 낮은 상품성(높은 분양가와 낮은 입지경쟁력)과 전체의 80%에 달하는 지방미분양의 해소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지방의 경우 수급상 주택공급이 이미 과잉상태로 진입했기 때문에 미분양물량이 소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상반기에 회복조짐을 보였던 주택시장은 지연되었던 신규물량이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물량부담이 우려됨. 반면 공공토목부문은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SOC투자 확대로 3/4분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하반기에도 4대강살리기, 호남고속철도,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용인 1단계), 경인운하, 새만금방조제 등 대규모 SOC투자가 연이어 발주될 예정

수주경쟁의 심화와 토목 등 저마진사업 비중 확대로 수익성 부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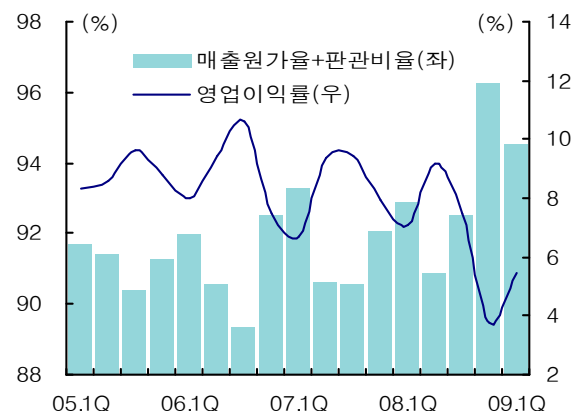
- 주택시장의 침체로 이익률이 높은 도급주택사업의 수주는 감소하는 반면 마진은 낮지만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공공부문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주비중 확대로 공사원가율 상승 전망
- 공공부문은 정부가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해 턴키발주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건설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프로모션 강화에 따른 판촉비 증가와 준공후 미분양 증가에 따른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판관비 증가 예상
- 세계경기 회복과 유가 반등으로 하반기 이후 해외공사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발주처의 공사비 절감 요구 강화가 예상되어 수익성이 저조할 듯

그림58 | 연도별 녹색뉴딜 투자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59 | 건설업종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Kis-Value

통신·방송서비스 산업군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

- 
- 1. 통신서비스
 - 2. 유선방송
 - 3. S/W 및 IT서비스

1. 통신서비스 : 매출액 성장세 회복, 경쟁심화로 수익성은 다소 하락

표20 | 통신서비스 시장 증감률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P	4/4E	2008E	1/4E	2/4E	3/4E	4/4E	2009E
시장 규모	5.7	6.0	7.1	7.5	6.8	4.6	6.7	-0.5	-1.6	3.9	5.6	1.6

주 : 2008년 실제 데이터는 2010년 하반기에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발표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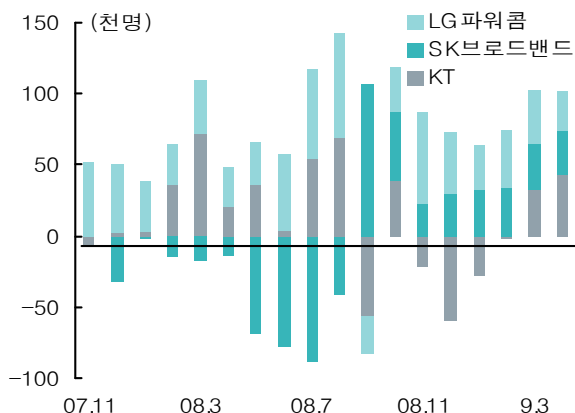
낮은 경기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유·무선 예외없이 전년동기비 성장률 하락, 그러나 수익성은 개선

- 경기민감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인터넷전화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결합상품 할인효과, IPTV의 부진한 가입자 증가추세로 유선시장은 마이너스 성장
- 유선통신서비스(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LG데이콤 4사 매출액 기준)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7.2%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
- 2/4분기 결합상품 경쟁이 촉발되었지만 상반기 수익성은 마케팅 비용절감과 비용구조 개선노력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이동통신시장은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KT-KTF 합병 이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번호이동경쟁이 2/4분기부터 재점화되면서 수익성 상승추세가 다소 꺾임

KT-KTF 합병에 따른 인터넷전화/IPTV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 경쟁과 통신사간 번호이동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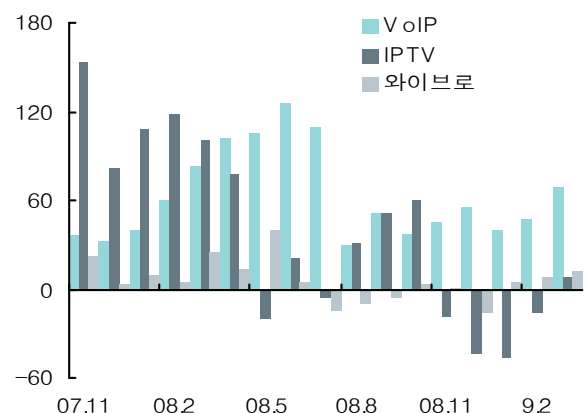
- 인터넷전화 가입자 증가율이 두자릿수에 이르는 등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가 빨라짐. 반면 IPTV는 지상파와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 지속과 매력있는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반기 가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점차 개선될 듯

표60 |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순증 추이



자료 : 각사 Factsheet 자료 참조

표61 | 통신서비스별 월별 가입자수 증감 추이



주 : IPTV는 VOD+실시간 포함, VoIP는 LG계열 가입자수를 의미
자료 :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데이콤 등 4개사 자료 참조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수익성은 상반기 이후 하락 기조 전환

- 2/4분기부터 지속된 번호 이동 경쟁이 3/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은 상반기를 고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대비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15% 수준에서 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액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1% 성장하는 수준으로 소폭 회복
- 와이브로 음성서비스의 도입과 MVNO제도 도입 등 정부의 경쟁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경쟁강도 상승 효과는 2010년부터 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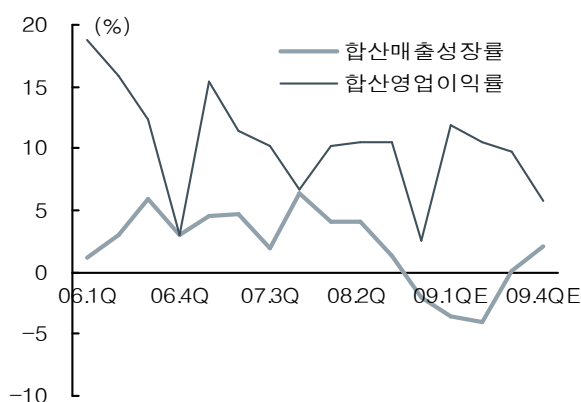
유선전화 매출 감소를 VoIP,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이 상쇄하면서 성장을 다소 회복

- 유선전화 사용자가 인터넷전화로 대체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를 결합상품 매출 증가분이 상쇄하지만 전년대비 1.1% 성장하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는 힘들 듯
- IPTV가입가구 월 순증 규모는 디지털CATV에 비하여 작으나, 하반기부터 판촉활동이 강화되면서 연내에 디지털CATV 월가입자 순증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를 위한 3개 통신그룹간의 결합상품 마케팅 경쟁이 사업자간 비용관리와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치면서 다소 누그러질 듯
-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결합상품 판매량 증가와 인터넷 전화의 보급 확대에 전년대비 1.3%p 상승한 수준을 유지할 듯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입지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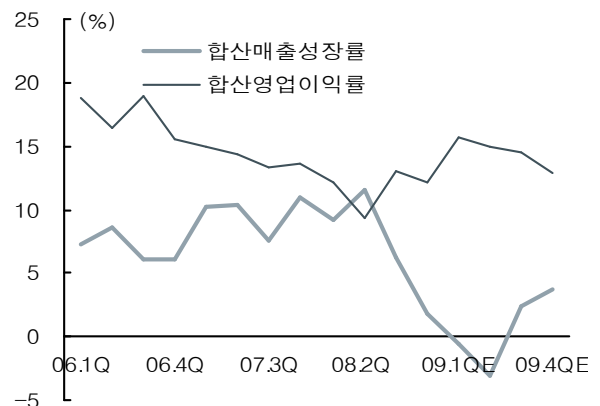
- 소비자 중심의 빠른 인터넷전화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IT투자 축소에 따른 기업 시장 위축, CATV 및 기업의 자가망 구축 확대,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상위 사업자의 본격적인 인터넷전화시장 참여 등으로 영업환경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

그림62 | 유선통신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주 : KT(합병 전 매출액 기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자료 : 각사 자료,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63 | 이동통신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주 : SKT, KTF, LGT 3개사 합산 매출액
자료 : 각사 자료,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유선방송 : 경쟁심화로 성장세 둔화되나, 디지털전환으로 수익성은 양호

표21 | 국내 케이블TV 매출액 증감률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P	4/4E	2008E	1/4E	2/4E	3/4E	4/4E	2009E
SO	-17.1	11.8	15.4	5.0	7.9	-4.3	5.4	0.7	2.2	4.2	10.7	4.5
PP	18.2	11.6	9.0	0.3	3.0	-6.0	0.9	-5.5	3.5	6.9	5.2	2.7

주 : 매출액기준, 2007년 실제 데이터는 2009년 하반기에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발표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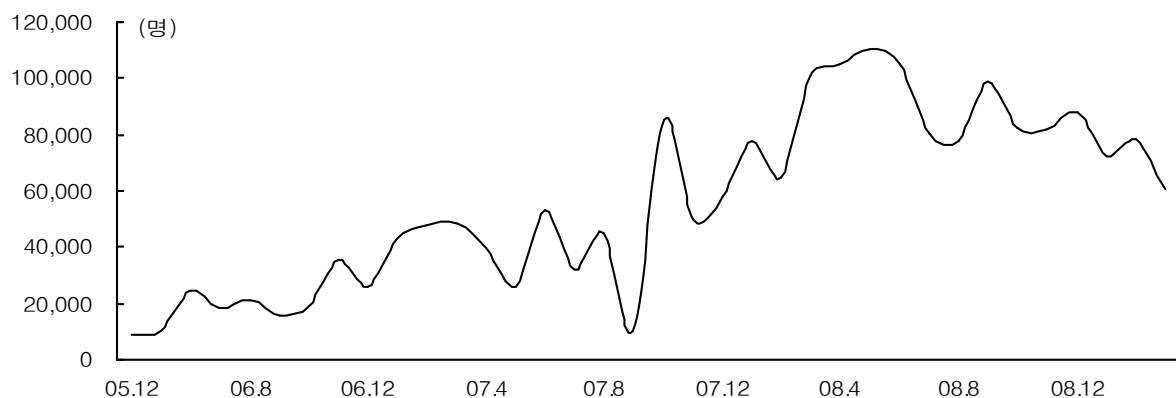
광고시장 위축과 CATV가입자 포화로 매출액 성장세가 둔화된 유선방송

-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주들의 광고물량 감소가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위축을 가져왔으나 CATV는 2/4분기 지상파에 비하여 양호한 수주 물량을 유지
- 유선방송 서비스 활동지수도 디지털전환에 따른 SO들의 매출액 증가 기대감 속에 1/4분기를 지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
- 1/4분기 SO 4개사의 매출액은 디지털전환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9% 증가, 그러나 통신사들과의 결합상품 경쟁심화로 매출액 성장률 회복 추세는 반락

경기침체와 IPTV등장으로 디지털CATV 가입자 전환속도는 하락했으나 IPTV보다는 양호

- 디지털CATV 가입자수는 '09년 3월말기준 211만명으로 2009.1~3월 월평균 7만명의 증가 수준을 보였으며 '08년 10만명 수준을 보였던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유선통신사들의 실시간 IPTV가입자수는 '09년 4월초 기준으로 32만명 수준으로 작년 11월 이후 월평균 약 6.3만명의 순증속도를 보여, 아직 디지털CATV 가입자보다 느린 편

표64 | 디지털CATV 가입자수 전월대비 증가수 추이



자료 : KCT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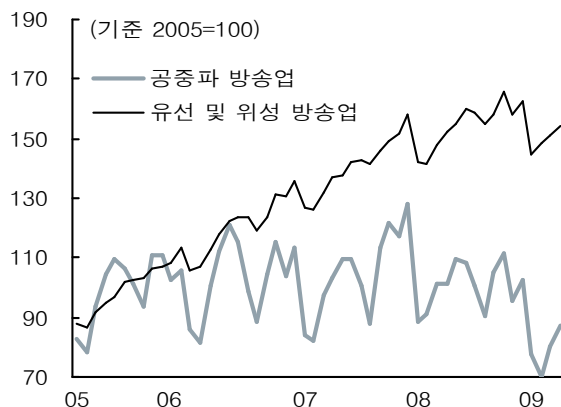
MSO소유규제 완화와 IPTV보급으로 MSO 수직·수평계열화 움직임 확대

- 티브로드 홀딩스의 큐릭스 인수로 방송법이 개정된 이후 MSO간의 인수 사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 티브로드는 2009년 2월 큐릭스 홀딩스 지분 70%를 인수 후, 최근 30%를 추가 인수
- 또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PP채널 3개를 추가로 인수 하는 등 MSP로의 행보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로 규모의 경제를 위한 타 MSO들의 M&A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
- 이미 HCN은 충남지역의 새로넷을 인수하면서 권역별 경쟁구도를 강화. 한편 2위 규모의 PP사업자였던 온미디어도 대형 MSP가 인수주체로 거론되고 있어 시장구조의 조정이 불가피
- 또한 MSO연합들은 종합편성 PP설립, QPS서비스를 위한 MVNO사업 진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할 듯

IPTV와의 경쟁부담이 업체들에게 작용하나 광고물량의 증가와 디지털 전환 지속되며 업황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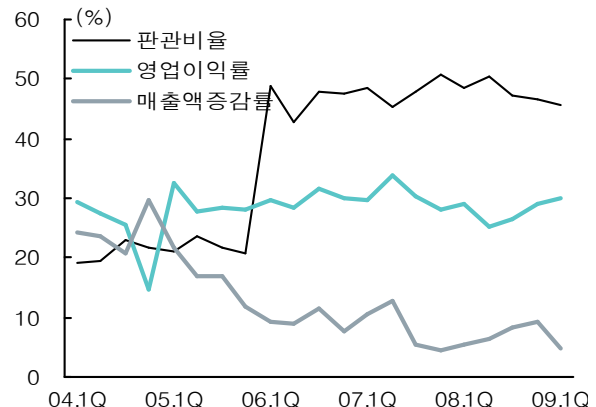
- 2009년 광고주의 예산 축소로 광고시장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듯. 그러나 광고업실사지수가 4~6월 연속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하반기 CATV 광고시장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한편 5월말 기준 가입자수가 500만을 초과한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이 9월부터 적용되면서 하반기 더욱 빠른 증가추세를 보일 듯. 이로 인한 통신사들과의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판촉경쟁이 점입가경을 보일 듯
- 따라서 번들상품(DPS, TPS)가격 면에서 아직 유리한 CATV의 매출액 성장세는 지속. 그러나 디지털 CATV의 월가입자 순증추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SO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4.5%로 전년수준을 소폭 하회할 듯
- 수익성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ARPU상승으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24~25% 수준을 유지할 듯

그림65 | 유선방송업 서비스활동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66 | SO 3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3. S/W 및 IT서비스 : IT투자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수익성 악화 지속

표22 | IT서비스 매출액 성장세 전망

(YoY, %)

구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P	4/4P	2008P	1/4P	2/4E	3/4E	4/4E	2009E
IT서비스	12.4	5.8	7.6	17.0	13.1	-3.0	7.2	-0.5	-3.1	-3.2	0.1	-1.6

주 : 매출액기준, 2007년 실제 데이터는 2009년 하반기에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발표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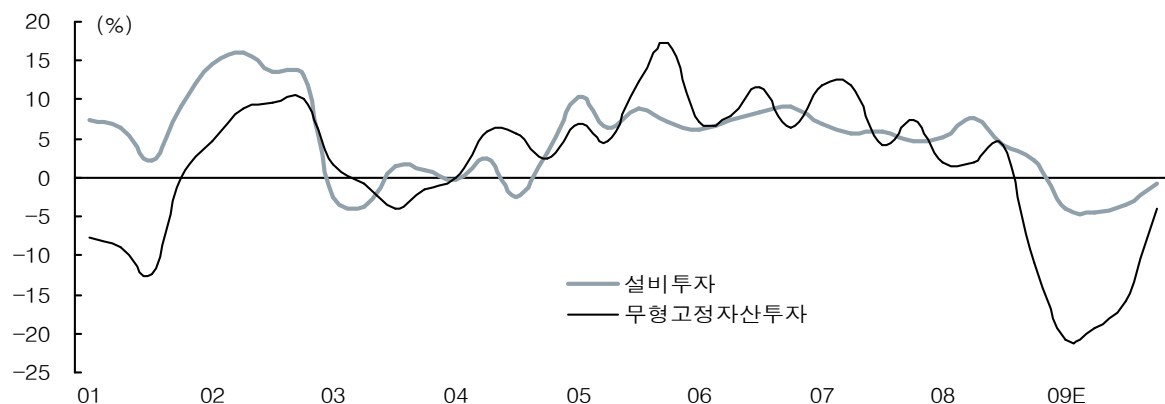
공공분야 조기 발주에 힘입어 1/4분기 주요 업체들의 실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

-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했던 주요 IT서비스 업체들의 매출실적은 공공분야의 조기발주와 전년도 이월 프로젝트로 인하여 예상보다 양호한 편
- 1/4분기 실적이 공시된 9개 IT서비스업체들(대형 3사와 포스데이타, 현대정보기술, 신세계 I&C, 쌍용정보통신, 동부C&I, 동양시스템즈)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0.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도 전년동기와 유사한 6.9%에 이름
- 이는 공공기관의 IT예산이 전년대비 7.1%나 감소하였지만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시스템 구축&개발 수요의 조기 집행과 이월된 프로젝트 매출에 크게 기인

민간 분야 IT투자 위축으로 무형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해 대부분 IT서비스 업체 실적 악화 불가피

- 공공 수주, 해외사업 증가 및 계열사 수요로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민간분야 IT투자 감소로 전체 S/W 및 IT서비스 업체들의 실적은 크게 악화
- 무형고정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분야는 1/4분기 전년동기비 -4.5% 감소하였으며, 2/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
- 이로 인하여 계열사가 없는 중견 이하 업체들의 매출 실적은 크게 악화되었을 듯

표67 | 설비투자 및 무형고정자산투자 증감을 추이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S/W분야도 IT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매출감소와 영업이익률 감소에 직면

- 기업들의 IT투자 감소와 예산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보안솔루션, 모바일 미들웨어, 전자결제 솔루션 등 투자 및 수요 증가 이슈가 발생하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면 매출감소와 영업이익률 하락에 직면
- 패키지S/W시장은 최근 3년간 3% 미만의 저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
- 안철수연구소, 이수유비케어, 이니시스, MDS테크놀로지등 34개 패키지 S/W업체들의 합산 매출액은 1/4분기에 전년동기비 10.5% 감소하였으며, 합산영업이익률도 적자로 전환

공공분야의 발주 여력 감소와 기업 IT투자 위축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 기록할 듯

- 3/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인 동시에 IT투자 위축 분위기로 업황의 빠른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상반기 유효했던 공공부문 조기발주 효과가 희석되고 제조, 금융 분야의 대규모 투자 수요도 없기 때문
- 다만 2/4분기 경기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IT투자(무형고정자산투자)도 4/4분기에는 전년동기비 1.5~2.5%p 낮은 수준까지 증가할 듯. 그러나 2009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
- 이로 인하여 하반기 IT서비스 생산액도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액 규모 감소에 따른 대부분 업체들의 수익성 하락 예상
- 관계사 수요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도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관계사 수요가 없는 업체들과의 수익성 격차는 더욱 벌어질 듯

그림68 | 패키지S/W BSI지수 추이



자료 : KAIT

그림69 | 컴퓨터관련서비스 BSI지수 추이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2009년 산업별 수급전망

(YoY, %)

		기준	생산				내수				수출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반도체		수출액	-	-	-	-	-	-	-	-	-45.5	-35.3	5.5	33.4
디스플레이		수출액	-	-	-	-	-	-	-	-	-10.2	17.5	5.5	35.4
휴대폰		전세계 출하량	-15.8	-13.0	-1.0	8.0	-	-	-	-		-	-	-
통신서비스		매출액	-	-	-	-	-0.5	-1.6	3.9	5.6	-	-	-	-
SW/IT(SI)		매출액	-	-	-	-	-0.5	-3.1	-3.2	0.1	-	-	-	-
CA TV	SO	매출액	-	-	-	-	0.7	2.2	4.2	10.7	-	-	-	-
	PP	매출액	-	-	-	-	-5.5	3.5	6.9	5.2	-	-	-	-
화학	정유	물량	-	-	-	-	-2.8	-2.5	-3.0	-2.4	14.1	8.0	7.0	9.5
	석유 화학	물량	-	-	-	-	-7.9	-7.2	-4.3	-10.5	13.4	13.7	-2.7	3.4
철강		생산지수	-28.2	-20.6	-17.1	10.1	-	-	-	-	-	-	-	-
비철금속		생산지수	-20.2	-11.6	-8.09	13.3	-	-	-	-	-	-	-	-
조선		수주잔량	-5.7	-14.0	-23.5	-27.2	-	-	-	-	-	-	-	-
자동차		물량	-31.9	-25.8	-0.9	5.3	14.9	2.5	0.5	-0.1	-36.6	-34.4	11.3	6.2
육상 운송	화물	생산 지수	-	-	-	-	-14.3	-11.0	-6.2	3.1	-	-	-	-
	소포	생산 지수	-	-	-	-	1.3	7.7	5.2	2.2	-	-	-	-
해상운송		매출액	-14.9	-24.5	-28.1	-24.8	-	-	-	-	-	-	-	-
제약		매출액	-	-	-	-	3.8	10.8	11.0	9.4	-	-	-	-
유통		판매액 지수	-	-	-	-	-2.4	-1.3	0.6	0.4	-	-	-	-
건설투자		금액	-	-	-	-	1.6	2.5	2.6	3.0	-	-	-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